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의 초대

2007. **6** Vol. 186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국악인 김영임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고향생각과 현재명

어화등등 이야기 국악 \_ 500년 전 우리 음악인의 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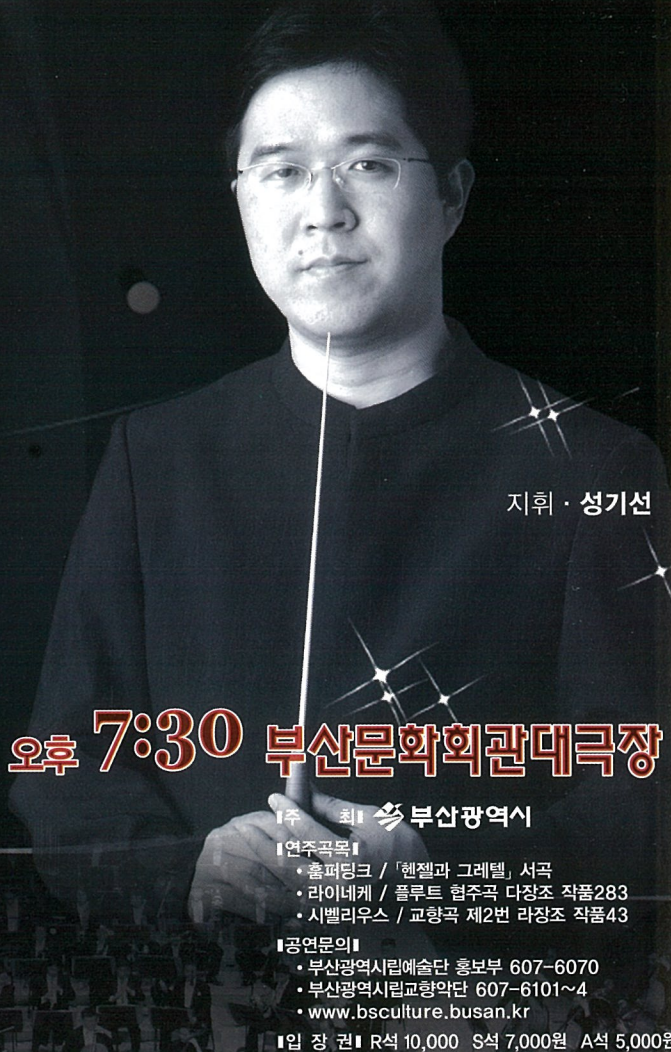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시애틀



#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플루트 · 최나경



지휘 · 성기선

2007. 6. 1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연주곡목

- 홀퍼딩크 / 「헨젤과 그레텔」, 서곡
- 라이네케 / 플루트 협주곡 다장조 작품283
-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2번 라장조 작품43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R석 10,000 S석 7,000원 A석 5,000원

서버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7번가피자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

에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365 www.ticket365.co.kr

서면 / 영광동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사직 (제일은행 옆 803-8000) 개금 / 신개금LG CLS (신개금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 /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 / 태안동서 (덕천교차로 332-7339) 하단 /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대연동 / 면학동서 (경성대 앞 623-9404)



# 부산시립극단 제 29회 정기공연

“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칼을 하나씩 품고있지.  
하지만 자기 가슴을 향해 날이 서 있어야  
미래라는게 있는 것이지.  
남을 향해 서 있으면 몰락하고 마는 거야.  
”

원 작 김 태 수



객원연출 곽 종 필


특별출연 B-boy (B.B.D)

2007. 5. 29(화) ~ 6. 2(토)

평일 19:30 토요일 16: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 장 권 일반 10,000원 청소년 5,000원 (현장판매)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남구 면학도서 사하구 향학서점 부산진구 영광도서, 동보서적  
중구 남포문구 북구 대한도서

인터넷예매: 티켓365 [www.ticket365.co.kr](http://www.ticket365.co.kr)

일반예매: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 607-6070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극단 051) 607-6136~8 [www.busantheater.org](http://www.busantheater.org)

# 맨



# Contents

2007 · 06



12



32



42

- 06 부산문화회관 6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내 친구 봉이 · 윤성원
- 12 반갑습니다 | 웰빙콘서트 위해 부산 찾는 국악인 김영임
- 14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고흥생각과 한제명 · 김상훈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시애틀 · 김현숙
- 20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500년 전 우리 음악인의 가훈(家訓)  
· 강성일
- 22 우리춤 산책 | 처용무 · 흥기태
- 24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물위의 길 <배지민의 그림-머물다>  
· 김형술
- 26 연극속으로 | 연극과 구경 · 유상훈
- 28 그곳에 가면 | 구덕문화공원
- 30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 32 지금 준비중 | 제 3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
- 34 이 사람 |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첼로 수석 양옥진  
작곡가 송필석
- 36 전시 화제 | 2007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중국 상하이  
박물관 소장 중국 고대 청동기 · 옥기展
- 37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의 세계 8 · 락근수
- 38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2 6월 프로그램 가이드
- 56 세계의 뮤지컬 | 사자왕, 뮤지컬의 왕 라이온 킹 · 이상훈
- 57 새로 나온 음반
- 58 새로 나온 책
- 64 공연 리뷰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서울연주회 · 현경채
- 65 부산문화회관 소식
- 6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대연 4동 848-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5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웰 B/D B1층
- 표지설명 : 부산시립무용단이 한국적인 멋과 해학이 담긴 오영진 원작 '명진사 떡 경사'를 춤극으로 재구성한 '이쁜이 시집가는날'로 부산시민들과 만났다.

※ 예술예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월 공연일정

### 전시실

- 제 27회 전국서도민전-대 · 중전시실**  
6월 1일(금)~6월 5일(화)  
본·익 한국서도예술협회(554-4850, 011-864-6288)
- 부산디카사랑 제 2회 사진전시회 '사진과 사람, 그리고 사랑 두번째 이야기' -중전시실**  
6월 8일(금)~6월 10일(일)  
본·익 부산디카사랑(263-0035, 011-9393-9880)
-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졸업 작품 전시회-중전시실**  
6월 12일(화)~6월 15일(금) (※6월 12일 전시오픈 오후 3:00)  
본·익 부경대학교(620-1390, 010-4546-5178)
- 대한민국 정통 서화대전 작품전시회-대전시실**  
6월 16일(토)~6월 19일(화)  
본·익 대한민국 정통서화협회(532-1250, 010-7163-633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9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극장

## MAIN THEATER

- 1 부산시립무용단 제 56회 정기공연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2 박현주 Wings Dance Company 발레공연 18:00 1만2천원 · 8천원/박현주(863-3433, 017-552-9605)
- 3
- 4 부산장로성가단 창단 20주년 기념 제 1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권오중(011-864-4867)
- 5 사랑의 부부 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 연합 합창제 19:30 초대/김명일(010-7556-5006)
- 6
- 7
- 8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김영임이 만나는 11시 해피콘서트' 11: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9 코리아 쇼페라 창단 공연 '푸치니의 남자 베르디의 여자' 16:00,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코리아 쇼페라(501-3999)
- 10
- 11
- 12
- 13 수영민속보존회 문화학교 제 2회 정기발표회 19:30 초대/수영민속보존회(752-2947, 016-529-5550)
- 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1회 정기연주회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5
- 16
- 17 전국 무용 경연대회 09:00 한국무용지도자협회(011-892-4777)
- 18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제 3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경희자(731-4470)
- 19
- 20
- 21
- 22 닥터스 빅밴드 제 6회 정기공연 19:00 초대/닥터스 빅밴드(550-9330)
- 23 부산CBS 제 23회 성가합창제 19:30 초대/부산기독교방송 CBS(636-0050)
- 24 2007 피아니스트 진보라 재즈 콘서트 부산 18:00 5만원 · 4만원 · 3만원/도토리엔터테인먼트(010-4820-6623)
- 25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6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7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8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9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30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7/1

## 중극장

## MEDIUM THEATER

- 1  양옥진, 정성훈 듀오 리사이틀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 2 
- 3  동그라미노래모임 제 13회 정기콘서트 16:00  
무료/이진규(018-570-1141)
- 4  제 3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원준연(019-660-3919)
- 5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창작 작품 발표회 19:00  
초대/부산여자대학(850-3060)
- 6  제 7회 김정희 피아노 아카데미 연주회 '6월의 향기- 4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파르렛콘서트' 17:30 초대/김정희(017-522-4106)
- 7  신정운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코리아아트(010-6665-3880)
- 8  포크, 블루스의 거장 이정선 콘서트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랩미디어(011-884-5540)
- 9 
- 10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18:00  
3만원 · 2만원/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011-597-6808)
- 11 
- 12  김희정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13 
- 14  소프라노 김선미 독창회 19:30  
초대/프리모아트메니지먼트(622-5529)
- 1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6  M&V 뮤지컬컴퍼니 '가스펠'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종합예술무대(202-4649, 017-574-4288)
- 17  M&V 뮤지컬컴퍼니 '가스펠'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종합예술무대(202-4649, 017-574-4288)
- 18  M&V 뮤지컬컴퍼니 '가스펠'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종합예술무대(202-4649, 017-574-4288)
- 19  M&V 뮤지컬컴퍼니 '가스펠'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종합예술무대(202-4649, 017-574-4288)
- 20 
- 21 
- 22  베누스토 부산, 경남 제 6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장호경(011-840-2400)
- 23 
- 24 
- 25  6 · 25전쟁 참전 유엔 전물용사 추모제 10:00  
무료/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회(808-7960)
- 26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7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8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9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30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7/1 

## 소극장

## SMALL THEATER

- 1  부산시립극단 제 29회 정기공연 '칼맨'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
- 2  부산시립극단 제 29회 정기공연 '칼맨' 16:0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
- 3 
- 4 
- 5 
- 6 
- 7 
- 8 
- 9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0 
- 11 
- 12 
- 13 
- 14  정순화 피아노 클래스 19:30  
무료/정순화(016-847-4914)
- 15 
- 16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7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 17:00  
초대/차현희(011-862-0980)
- 18 
- 19 
- 20 
- 21  정원상 UN 추모 음악회 19:30  
초대/백승태(018-244-1723)
- 22 
- 23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극악관현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4  피아니스트 정수연 클래스-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음악회  
17:00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25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6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7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8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29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30  제 24회 부산음악콩쿠르 10:00  
MBC(760-1125)
- 7/1 

· 부산시내 기타공연 ⑥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fri) 빈칸
- 2 (sat) B-Boy KOREA 15:00, 19:00 - 대극장 PMC 네트웍스(1588-1795)  
니안다와 디지털 대소동 12:00, 14:00, 16:00 - 소극장 극단 한샘(1544-9786)
- 3 (sun) B-Boy KOREA 14:00, 18:00 - 대극장 PMC 네트웍스(1588-1795)  
니안다와 디지털 대소동 12:00, 14:00, 16:00 - 소극장 극단 한샘(1544-9786)
- 4 (mon) 월요영화 '리핑:10개의 재앙'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5 (tue) 빈칸
- 6 (wed) 창작 가족인형극 '애기똥풀' 14:00, 16: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 7 (thu) 창작 가족인형극 '애기똥풀' 11:00, 16: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 8 (fri) 창작 가족인형극 '애기똥풀' 11:00, 16: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 9 (sat) 창작 가족인형극 '애기똥풀' 11:00, 16: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 10 (sun) 빈칸
- 11 (mon) 월요영화 '더블 티켓'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2 (tue) 락음악극단 정기연주회 19:30 - 대극장  
초대/락음악극단(02-766-5111)
- 13 (wed) 빈칸
- 14 (thu) 빈칸
- 15 (fri) 점프 19:30 - 대극장  
4만원 · 3만원/KNN(1577-7600)
- 16 (sat) 점프 15:00, 19:00 - 대극장 4만원 · 3만원/KNN(1577-7600)  
팔죽할범과 호랑이 13:00, 15:00 - 소극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17 (sun) 점프 14:00, 18:00 - 대극장 4만원 · 3만원/KNN(1577-7600)  
팔죽할범과 호랑이 12:00, 14:00, 16:00 - 소극장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18 (mon) 월요영화 '아들'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9 (tue) 유:콘서트 '주호성 & 전수경 드라마 뮤지컬 갈라공연'  
11:00, 19:00 - 대극장 균일 1만5천원/시민회관(630-5200)
- 20 (wed) 빈칸
- 21 (thu) 6월의 합성 19:30 - 대극장  
2만원 · 5천원/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 22 (fri) 빈칸
- 23 (sat) 8인 8색 춤향 18:00 - 소극장  
2만원 · 1만원/김정원(636-8071)
- 24 (sun) 빈칸
- 25 (mon) 월요영화 '스파이더맨 3'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6 (tue) 빈칸
- 27 (wed) 봉생병원 인공신장실 개원 20주년 기념음악회 19:00 - 대극장  
초대/봉생병원 인공신장실(664-4231)
- 28 (thu) 빈칸
- 29 (fri) 금관악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동요세계 11:00, 16:0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0:00, 11:20 - 소극장 극단 심인(031-499-6658)
- 30 (sat)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1:00, 14:00, 16: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극단 심인(031-499-6658)
- 7/1 (sun)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14:00, 16:00 - 소극장  
균일 1만5천원/극단 심인(031-499-6658)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fri) 민병수 브이슈발레단 제 11회 정기공연 19:30  
균일 1만원/김희정(018-566-7136)
- 2 (sat)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할범과 호랑이' 13:00, 15:00 -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3 (sun)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할범과 호랑이' 13:00, 15:00 -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4 (mon) 빈칸
- 5 (tue) 부산에어로빅스연구회 제 6회 정기공연 19:30 - 대공연장 김미재(757-3333)  
시아 춤과 소리의 만남 17:00 - 소공연장 초대/금정문화회관(581-9071)
- 6 (wed) 빈칸
- 7 (thu) 보고 느끼는 신나는 마술쇼 10:00, 11:00 - 대공연장 마술나래(02-3487-2643)  
해금 5중주 천금 창단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이인경(011-9932-6910)
- 8 (fri) 브니엘 국제예술중 · 예술고등학교 정기연주회 19:30 - 대공연장  
초대/브니엘 예술부(582-7671)
- 9 (sat) 빈칸
- 10 (sun) 부산클라리넷파르렛 제 12회 정기연주회 18:0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김태훈(017-543-0883)
- 11 (mon) 동아발레단 제 13회 정기공연 19:30 - 대공연장 신세정(011-9505-9907)  
원영아 피아노 리사이틀 19:3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가람공연기획(626-6664)
- 12 (tue) 6월의 소나기 19:30 - 소공연장  
초대/강희숙(016-562-6561)
- 13 (wed) 베리 스니יד어 피아노 리사이틀 19:30 - 대공연장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금정수요음악회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14 (thu) 앙상블 클라시아 11시 브런치콘서트 11:00 -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 15 (fri) 가족뮤지컬 '백조의 호수' 10:10, 11:20 -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6 (sat) 가족뮤지컬 '백조의 호수'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7 (sun) 가족뮤지컬 '백조의 호수'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 1만2천원/dubu기획(02-2654-6854)
- 18 (mon) 빈칸
- 19 (tue) 2007 예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19:30 - 소공연장  
초대/최지현(011-594-9124)
- 20 (wed) 금정수요음악회 '아리아에서 뮤지컬까지'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21 (thu) 김명숙 춤향가 전편발표회(동초제 판소리) 18:00 - 소공연장  
초대/김명숙(019-306-8278)
- 22 (fri) 제 10회 브니엘음악영연대회 입상자 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브니엘 예술부(582-7671)
- 23 (sat) 미녀와 야수 11:00, 14:00, 16:00 - 대공연장 극단 심인(031-499-6658)  
이임수 클라리넷 독주회 19:00 - 소공연장 박성호(011-747-8002)
- 24 (sun)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14:00, 16:00 - 대공연장  
균일 1만5천원/극단 심인(031-499-6658)
- 25 (mon) 빈칸
- 26 (tue) 빈칸
- 27 (wed) 금정수요음악회 '오카리나와 동요의 만남'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28 (thu) Aria's 페스티벌 19:30 - 대공연장  
문대진(011-9526-8929)
- 29 (fri) Aria's 페스티벌 19:30 - 대공연장 문대진(011-9526-8929)  
브레멘 동물음악대 10:00, 11:00 - 소공연장 가람공연기획(626-6664)
- 30 (sat) Aria's 페스티벌 19:30 - 대공연장 문대진(011-9526-8929)  
브레멘 동물음악대 14:00, 16:00 - 소공연장 가람공연기획(626-6664)
- 7/1 (sun) 브레멘 동물음악대 14:00, 16:0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가람공연기획(626-6664)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에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6/8(금) 11:00	박호성과 김영임이 만나는 11시 해피콘서트	균일 15,000원	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6/8(금) 19:30	포크, 블루스의 거장 이정선 콘서트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30%	랩미디어 (1588-2528)
시민회관	6/2(토) 15:00, 19:00 6/3(일) 14:00, 18:00	B-Boy Korea	R석 40,000원 · S석 25,000원 A석(2층) 15,000원(1인 4매까지)	30%	PMC네트웍스 (1588-1795)
	6/15(금) 19:30 6/16(토) 15:00, 19:00 6/17(일) 14:00, 18:00	점프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10%	KNN (1577-7600)
	6/16(토) 16:00, 19:00 6/17(일) 15:00, 18:00	국민모녀연극 친절엄마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10%	AN시티 (1644-4484)
KBS부산홀	6/2(토) 19:30	인순이 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10%	와우엔터테인먼트 (740-6001)
	6/3(일) 18:00	M,C The Max '月兒無敵' 2007 투어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10%	샤인엔터테인먼트 (442-0877)
	6/9(토) 16:00, 19:30	이승철 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10%	요요기획 (622-5744)
	6/17(일) 16:00, 19:00	웃찾사 부산나들이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10%	아트인부산 (442-6500)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6/17(일) 18:30	SG 워너비 부산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10%	Ymix (757-9876)
국도 B-Boy 전용관	6/15(금)-7/31(화) 평일 20:00, 토요일 16:00, 20:00, 일 · 공휴 일 15:00, 19:00	비보이 퍼포먼스 B SHOW	일반 50,000원 · 학생 40,000원	20%	윈스테이지 (1588-0881)
동아대학교 석당홀	7/14(금)-7/21(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30, 일 · 공휴일 15:00, 18:30	한국공연 15주년 기념 뮤지컬 '년센스'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10%	AN시티 (1644-4484)
늘원소극장	5/22(화)-6/24(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요일 15:00, 18:00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격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10%	윈스테이지 (1588-0881)
가마골소극장	6/8(금)-6/17(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6/19(화)-6/24(일) 평일 · 토요일 19:30, 일요일 18:30	사실적으로 간다 Part 1 내 마음의 안니푸르나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6/19(화)-6/24(일) 평일 · 토요일 16:00, 일요일 15:00	사실적으로 간다 Part 2 그 자식 사랑했네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평일 낮 공연 균일 15,000원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터리 332-7339)

# 내 친구 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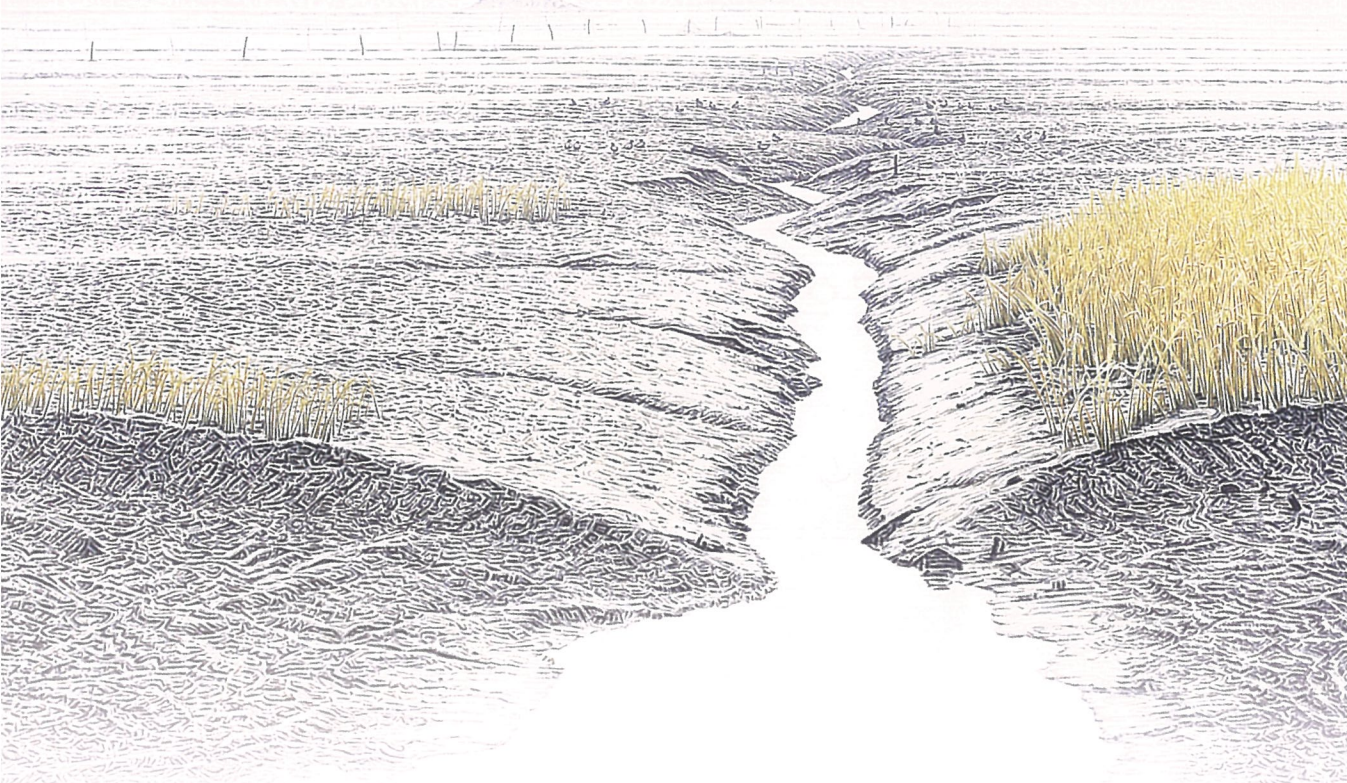
윤성원 · 음악평론가, PBC화요음악회 음악감독

내겐 마음 따뜻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 봉(鳳)-뽕. 이름만 불러봐도 입가에 미소가 생긴다. 그림밥 먹는 친구네, 벌써 20년지이다. 고교 동기인 봉이와는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막역지우가 되었다. 꿈 많던 스물, 순수예술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역사를 보며 사회를 느끼며 때로는 격론을 벌이면서 공안리 모래밭에서 많은 새벽을 맞았다.

봉이는 최근 6년 만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용두산 갤러리에서 만난 그림의 대부분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그곳, '개펄'이었다. 개펄은 여전히 점과 단선(短線)만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몇 달 전 작업실에서 찍어대던 점과 선이 개펄과 하늘, 그리고 바다를 가진 아름다운 풍경화가 되어 있었다. 봉이의 작업은 아주 천천히 천천히다. 누군가가 안단테(Andante)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고 했던가. 봉이는 그야말로 라르고(Largo)다. 물론 그의 동작이 굵뜨거나 게으르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성실 자체이며, 그의 작품 속 점 하나 선 하나에 많은 생각과 노력을 불어 넣고 있음을 나는 안다.

문제는 봉이가 선택한 대상인 개펄에 있다. 봉이는 개펄이 캔버스 위에서 '형상화된 덩어리'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하나 살아 있다고 본다. 그걸 한 터치로 묶음질 한다는 게 봉이의 맘에는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평론가 강선학 선생은 작품평에서 '형태는 언제나 미완이고 물이 빠진 개펄의 물결은 언제나 변화한다. 어느 곳으로도 길을 낼 수 있는 곳, 그것이 개펄의 풍경이다'라면서, 봉이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동안 개펄에 매달려 점묘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유의 갈망을 읽어내고 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개개의 점과 선 사이의 호흡을 투시하고 이렇게도 읽어낸다. '그의 풍경처럼 그의 사유도 미끄러지는 현실의미를 잡아내는 것 혹은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개펄 하나로 세계를 들쭉서보는 사유를 만들어가는 것, 환경, 사회, 역사, 현실 어디로든 미끄러져 가는 사유의 자유로움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어디든 길이 나는 자유로움 속에서 시속(時俗)에 따라 망가지고만 개펄을 보는 것에서 분노를 내보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빈틈을 보아내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최근에 발표한 봉이의 개펄은 6년 전, 봉 개인전 테마인 '부산(釜山)'의 진화(進化)다. 봉이와 나의 고향 부산. 사실 봉이는 대학 졸업과 함께 그림을 접고 아버지의 사업체에 입사해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술이란 게 배고프고 갈 길은 멀고 험한 것. 하지만 붓을 꺾을 수 없었던 봉이는 '잠시'라는 단서를 달고 연산동 구석에 작업실을 열었고, 경남 사천으로 남명(南冥) 선생 배우기의 외유생활을 했다. 운명



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전업작가(專業作家)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직동 작업실에서 봉이는 행복 해 했다. 하지만 막연한 미래, 갈등과 혼동에서 오는 중압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방으로 창이 나 있는 작업실의 좋은 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뭔가가 필요했다. 창밖의 모습은 사직동, 부산의 모습이로되. 후! 봉이는 힘겨운 공기와 삭막하고 딱딱한 사각형의 반복만을 물끄러미 3층에서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내가 나서 자라온 부산. 부산은 어떤 곳인가. 바다와 강 그리고 산들에 둘러 싸여 있고, 남쪽 땅 한 쪽 끝에 있는, 좁고 과밀해서 서로 부대끼며 살 수 밖에 없는 곳이라는 막연한 기억들만 머릿속에 떠오를 뿐이다'. 봉이는 그날부터 '부산'이라는 대상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기 위해 적극적인 몸짓을 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념 속에서 죽어 버린 도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기 위한 노력을 했다.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한번은 비가 엄청 쏟아지는 산꼭대기에서 통화를 하기도 했다. 3년 만에 갖게 된 개인전의 기법도 점과 단선이었다. 온천천, 낙동강, 봉래산, 용호동, 연산동, 반여동, 장산, 문현동, 물만골, 황금련산 등등 그 많던 집과 빌딩, 산과 강과 나무가 모두 점과 선으로 완성되었다. 부산이 호흡하고 자유로운 역동성을 갖게 하기 위한 봉이의 의도였다. 봉이에게 난 항상 얘기해왔다. '시원하게 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내라고.' 하지만 봉이는 열은 미소뿐이다.

봉이 얘기에 지면을 다 써 버렸다. 하지만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짧게, 내 얘기를 조금 덧붙인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물이유취(物以類聚)라고 했던가.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나도 점찍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PBC 화요음악회가 100호 짜리 내 캔버스다. 객석과 무대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객석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 음악회. 매주 찍는 갖가지 색의 음악회들이 숨을 쉬고 빛을 받아 부산음악문화가 호흡하고 자유로운 역동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시간이다. 나도 내 친구 봉이처럼 라르고로 작품을 만든다.

## 부산시민을 위한 웰빙콘서트 무대 위해 부산찾는 국악인 김영임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지만 부산시민들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뜨겁게 호응해줍니다.”

열아홉 나이에 소리에 입문, 우리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쉽 없이 활동해온 국악인 김영임. 대중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타고난 소리꾼 김영임이 6월 8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무대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웰빙 콘서트가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여성 청중들을 겨냥한 공연인 만큼 어느 공연 보다 기대가 크다. 이번 웰빙콘서트의 제목은 ‘박호성, 김영임이 만나는 11시 해피콘서트’. 김영임씨는 소리꾼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의 입장이 되어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바쁘게 살아온 여성 청중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음악회를 만들고 싶다.

1971년 서울국악예고를 졸업한 김영임씨는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19호 이창배 문하에 입문했다. 많은 음반활동과 공연 활동으로 우리 소리를 알린 그는 상복이 많아 1984년, 1992년, 1995년 세 차례 KBS 국악대상 수상을 수상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을 수상했고 2003년도에는 국민화관훈장 수훈 및 대통령상도 받았다.

김영임씨는 1974년 회심곡을 시작으로 2005년 경기 12잡가 음반까지 많은 음반을 출판했다. 국악 음반으로는 최고의 판매를 기록한 김영임씨의 대표곡 회심곡은 그가 21살 되던 해 작업했다. 총 7테마로 구성된 회심곡은 완창 시간만도 무려 약 40분에 이르는 대작으로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이 삼백예순날 눈물로 부르는 망부가처럼 절절히 그 한과 슬픔이 흐른다. 그저 소리가 좋아서 불러본 '회심곡'이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당시 그로서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21살에 부른 회심곡은 아직 세상에 휘둘리지 않은 맑고 청아한 소리의 맛을 살린 음반이라고 하면 1997년 두 번째로 만든 '회심곡' 음반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인생을 알게 되면서 세월의 깊이가 묻어난다. 1974년 당시 회심곡은 국악음반으로는 최초로 100만장 이상 팔리는 대기록을 세웠다. 김영임씨의 '회심곡'은 다양한 서양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던 무렵, 우리 소리에 관심을 갖게 해준 뜻깊은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4년부터 '김영임의 대공연'을 기획, 전국을 누빈 그는 미국(뉴욕, 카네기, LA 등), 일본, 러시아 등 해외공연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며 우리 음악을 곳곳에 알렸다. 효를 주제로 10여 년간 이어 온 김영임씨의 '효 대공연'은 국악과 뮤지컬과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초대형 국악 뮤지컬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임씨는 휠체어에 의지해 공연장을 찾는 어르신들이 공연관람 후 환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

수많은 무대에 서온 그이지만 2006년 5월 국악인으로서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서 영국 왕실 소속의 로열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영국 공연을 잊을 수 없다.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우리 음악을 알린 그는 관객들로부터 30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김영임씨의 아호는 소민(素民)이다. '소민'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원 재학시절 스승이었던 목정배 전 교수가 그에게 지어 준 아호다. '큰 무대, 작은 무대에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소리꾼이 되어라'는 가르침으로 지어주신 아호이다. 30여년 소리를 해오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전수조교로 경기민요를 전승하고 있는 김영임씨는 2004년 소민 김영임 소리전수원 문을 열었다.

"앞으로 제가 할일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우리 소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소리가 좋아 찾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하니 아플 수도 없습니다."

'해피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 소리를 통해 남을 즐겁게 하는 직업인 만큼 김영임씨는 음악회에 온 청중들이 자신의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귀뜸해 준다.

## ‘고향생각’과 현제명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작곡가이자 성악가였던 현제명선생.

사람은 예외없이 세가지의 향수를 지니고 산다고 한다. 사랑에 대한 향수 (love sickness), 고향에 대한 향수(home sickness) , 바다에 대한 향수(sea sickness)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절실하고 밀도 짙은 향수가 된다고 잘라 말하기는 힘들다. 사람마다 성향이냐 관심도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고향산천에 대한 향수에서 그치지 않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 형제, 친척, 친지, 친구까지도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문학과 음악에서 고향을 소재로 한 시나 노래는 양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우리나라 가곡 가운데 가장 많이 애창되는 고향노래는 역시 현제명 작곡의 ‘고향생각’이 아닐까 싶다.

“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없어/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일을 생각하니/눈물만 흐른다//”

이 노래는 흥난과 선생이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 1922년의 작품으로, 고향 생각이 나서 거의 즉흥적으로 작시, 작곡한 것이다. 현제명 선생은 현석(玄石)이란 호를 가진 작곡가이자 성악가였다. 대구출신으로 계성학교를 거쳐 평양숭실전문학교에 입학, 선교사들의 음악교육에 감화를 받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며 합창단에 들어가서는 테너로서 기량을 닦았다. 1923년 숭실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전주 신흥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25년 도미하여 시카고 건음악대학에서 수학, 1928년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그해 9월부터 연희전문(현 연세대학교) 음악부 주임이 되어 합창부, 관현악부를 조직, 음악보급에 정열을 바쳤다.

1929년 2월 27일 하세가와(長谷川) 공회당에서 고봉경(高鳳京) 반주로 현제명 제 1회 독창회가 열렸는데 곡목은 자작인 가곡 ‘석양’ ‘집으로 돌아오라’를 비롯 마이야베르 곡인 오페라 ‘아프리카나’ 중 ‘오 낙원이여’, 버리시네 곡 오페라 ‘토사닌다’ 중 ‘전원의 노래’, 베르디 곡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마리놀라’ 등의 아리아와 헨델 곡 ‘라르고’, 슈베르트 곡 ‘아베마리아’ 등 외국가곡들을 노래했다. 1930년 이후 중앙악우회(樂友會)를 만들어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하면서 작곡집 1집과 2집 그리고 흥난과 선생과 함께 2인 작곡집 발표회도 가졌다.

현제명 선생은 1932년 조선음악가협회를 창설하고 1934년 경성음악학교를 창립하는 등 주요한 음악적 업적을 남긴다. 1937년 다시 도미하여 모교인 건음악대학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42년에는 미국 컬럼비아 빅터레코드 청반(靑盤)라벨과 적반(赤盤)라벨 예술가로 대우받게 되어 ‘아이 아이 아이’, 토셀리



의 세레나데 '니나' 등 많은 노래를 취입했다.

현재명 선생은 1954년 고려교향악단을 창설, 이사장에 취임했고 1946년 서울 남산에다 경성음악학교를 설립했는데 다음해에 서울대학교에 흡수되어 서울음대가 되자 초대 음대학장으로 취임, 1960년 작곡할 때까지 음악교육에 헌신하셨다.

선생의 작곡 가운데 애창되는 노래로는 '그 집 앞' '희망의 나라로' '산들 바람' '오라' 등이 있는데 '그 집 앞'은 1933년 그 자신이 테너였기 때문에 자신의 노래로서 세상에 알려진 곡이다.

“오가며 그 집앞을 지나노라면/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오히려 눈에 땀까 다시 걸어도/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미련과 재회의 소망을 듬뿍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하겠다. 멜로디의 진행이 단조로우나 답답하면서도 아늑한 그리움으로 젖어있는 곡이다. '희망의 나라로'는 1940년대의 작품으로 그의 가곡 중에서는 명쾌한 리듬과 활달한 가락으로 약간 이색적인 곡이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파도건너 저 편 언덕에/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뚝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서 나가자/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이는 일제말기 암울(暗鬱)했던 시기에 억색(抑塞)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곡자의 의지와 신념을 읽을 수 있는 가곡의 하나라고 하겠다. '산들 바람'도 미국유학시절에 작곡한 것으로 작곡자 자신이 성악가인 것을 입증하듯이 산뜻하고 유창한 선율의 진행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 대중성이 높다.

“산들 바람이 산들 분다/달밝은 가을밤에/달밝은 가을 밤에/산들 바람 분다/아아아 너도 가면 이 마음 어이해?”

정말 소박한 서정이 담긴 가곡이라 하겠다. '오라' 역시 낭랑한 멜로디의 연속으로 운치가 넘치는 곡이라고 하겠다.

“앞산과 뒷내는 옛같이 푸르고/하늘은 맑은데 바람은 우수수/오라 오라 내동무여//목동은 발 같고 처녀는 베짜서/정답게 살도록 오라 오라 오라//”

현석선생을 회고하면서 그의 오페라 작품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완성한 '춘향전'과 1954년 작품 '왕자호동'이 대표작이라 하겠다.

작곡자이면서 성악가였던 현석 현재명 선생이 남긴 업적은 오래동안 우리나라 음악발전에 굳건한 주춧돌의 뒹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 시애틀의 대학생활

김현숙 · 미국 통신원



1861년에 설립되어 1895년 현재의 위치인 시애틀에 자리잡은 워싱턴대학.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 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 해라...”  
 -조병화시인 '해마다 봄이 되면' 중에서-

겨우내 잠자던 대자연의 생명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아름답게 다시 솟구치는 힘으로 생명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초여름의 날씨일 진 모르겠으나 시애틀의 봄은 한국보다 늦은 4월에 찾아와 어김없이 봄의 새로운 기운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에 태어난 나로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나는 생명력의 에너지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더욱 부지런을 떠는 것 같다.

추운 겨울에 시애틀에 도착해서 어쩔 수 없는 적응생활의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봄을 체감할 여유가 없었다. 비로 유명한 시애틀의 날씨도 한 뭇 한 듯 하다. 아침저녁으로 한차례씩 샤워기로 뿌리듯 비가 오기 때문에 시애틀 특유의 싸늘한 날씨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Spring quarter(4학기중)부터 시작된 학교생활에 열중하다 보니 어느새 시애틀 전역에, 들판에, 캠퍼스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Ever Green' 이라고 불릴 만큼 시애틀은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지만, 봄의 향연에는 신선한 충격을 받을 만큼 아름답기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그 아름다운 봄의 제전에 내가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교수업에 적응하느라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가끔씩 연습실 대형유리문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꽃들과 아파트 창 너머 보이는 식물원의 울창한 숲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본다.

Spring quarter에 시작된 나의 반복된 생활패턴은 학교수업과 도서관 그리고 집을 삼각구도로 계속 돌고 있다.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애틀은 겨울이 길고 봄이 늦게 도착해 대부분의 무용공연이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게다가 미국대학의 수업들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학



기 중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서관과 무용수업에 관한 체험을 시애틀 소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1861년에 설립되어 1895년에 현재의 위치인 시애틀에 자리잡은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UW)은 다운타운에서 3마일(4.8km)정도 떨어진 유 지구라고 불리는 분주한 상업지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Campus Maps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방대한 곳이다. 물론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학생기숙사와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와 스튜디오가 많고 더불어 저렴하고 다양한 국적의 식당들과 극장, 서점, 쇼핑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생활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UW의 아름다운 경관은 시애틀 관광 필수코스라 정해질 만큼 유명하다. 특히, 메인 도서관인 Suzzallo Library와 Allen Library, 그리고 Burke Museum과 Meany Hall은 UW의 자랑이자 시애틀의 유명건축물이기도 하다.

1915년 취임한 Henry Suzzallo 총장의 최우선 사업으로 1923년에 설계되어 1935년에 완성된 Suzzallo Library는 UW의 첫 도서관이자 중앙도서관으로서 튜더 건축양식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어 건축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건물 외관에는 지성과 학문의 상징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플라톤, 셰익스피어, 뉴턴 등 18명의 인물이 테라코다 형식으로 조각돼 있으며 도서관 2층 독서룸은 미대륙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또 다른 대규모 도서관인 Allen Library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워싱턴대학 도서관 부관장을 역임한 아버지인 Kenneth S. Allen의 이름으로 1천만 달러를 기증해 1991년에 지어진 도서관이다. UW이 미 북서부 지방의 유명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도 시애틀 부근(Bellevue)에 거주하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시스템에 있어서도 시애틀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습하거나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다. 규모도 상당하며 아늑하고 밝은 실내 인테리어와 책(한국 잡지책포함)과 비디오, CD, DVD는 물론, 영어를 말하고 배울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ESL Class, Talk Time, Book Discussion, Children Program 등 다양한 참여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간단한 회원등록으로 책 100권까지 무료로 체크아웃이 가능하고 개인당 1주일에 75장까지, 이중 10장은 컬러로 프린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따로 프린트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끔 발표할 사진을 컬러로 출력하거나 복사가 필요할 때 이곳을 찾는다.



워싱턴대학 메인 도서관인 Suzzallo Library와 Allen Library, Burke Museum과 Meany Hall은 UW의 자랑이자 시애틀의 유명건축물이기도 하다.



워싱턴주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인 Burke Museum 내에 전시된 토렘폴과 필자.

UW의 대학축제는 한국의 대학가처럼 들뜬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대학 강의에 지장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펼쳐진다. 축제는 대부분이 학과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나 다국적 다문화 이해, 수용하려는 박람회 위주로 구성되어 UW의 자랑인 Burke Museum과 Meany Hall 등 학교지구 에 있는 여러 공연장과 박물관, 도서관 앞의 메인 붉은광장 등에서 열린다. 특히, 1885년에 지어진 Burke Museum은 워싱턴 주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법관인 Thomas Burke의 미망인이 1962년에 기증한 건물이다. 이곳은 워싱턴지역과 고대의 자연사와 문화는 물론 여러 나라의 고대 양식과 풍습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특히 미국 인디언들의 카누와 토렘 폴 등 조각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태평양 연안 국가 중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문화유산도 전시되어 있다. 한국은 베틀 짜는 장면이 전시되어 있어 반가웠다.

무용 전공자인 내가 추천하는 대학명물은 Meany Hall이다. 내가 속해 있는 Dance Program(무용학부)과 바로 붙어있는 Meany Hall은 워싱턴주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연장이며 1,206석의 강당과 238석 규모의 연습장 등 5개의 주요 강당을 갖추고 있다. 로비에 들어서면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그림과 조각 등의 예술 작품들이 방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밖으로 나오면 UW의 아름다운 캠퍼스와 Suzzalo Library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Dance Program에서의 연간 5회 정기적인 공연을 제외하고는, School of Drama, School of Music 그리고 The Center for Digital Arts & Experimental Media 등의 공연장으로, 각종 국제 예술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UW World Series at Meany Hall for the Performing Arts' 국제무용행사는 1년간 분기별로 각국의 현대무용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이 기획되어 벌써부터 1년치 티켓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시애틀의 대표적인 발레단인 'Pacific Northwest Ballet'는 2008년까지의 시즌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UW의 'Chamber Dance Company: CDC'는 시애틀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프로무용단체로, 앞으로 펼쳐질 춤의 향연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특히 CDC의 경우는 UW 졸업생과 미국의 유명한 안무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현대무용의 대표적인 안무가 마사 그라함에서 머스 커닝햄까지 내로라하는 안무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이 CDC의 기초적인 저력을 갖추게 한 것 같다.

졸업생이라 해서 CDC에 쉽게 입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UW의 무용학과를 입학하는 것도 CDC입단 보다는 다소 쉬울 수 있겠으나, 학기 중에 취득해야 하는 학점과 조건이 까다로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지 않으면 대학원 진학은 물론이고 졸업도 힘들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하기 때문에 졸업까지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출석만 하면 기본학점이 주어지는 한국과는 달리, UW에서는 출석 외 수업중의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도, 창의력에 따라 학점이 천차만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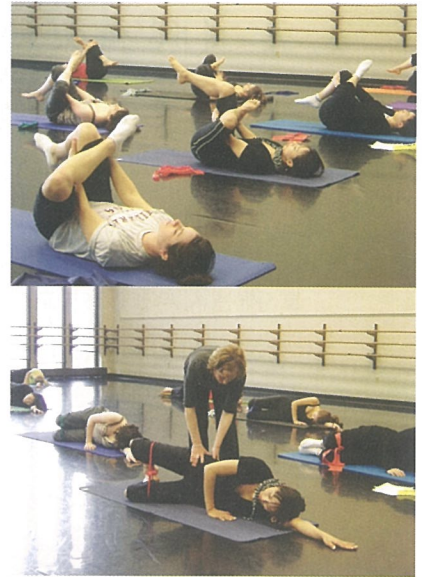
나도 Dance Program에서 Visiting Scholar로서 필라테스(Pilates) Class를 수강하고 있지만, 1교시 수업이라는 배려 없이 정말 타이프 하게 수업이 진행된다. 필라테스 수업은 무용전공자와 부전공자 모두에게 허락된 수업이지만 워낙 인기 수강과목 인지라 교수(Pilates 담당 Rebecca Jorgensen)의 사전허락이 필수다. 특히, 이번 학기엔 Mat와 Thera-band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과 근육강화, 무용상해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다. 상급반 수업이라 동작이 고난도로 힘들지만 해부학적인 이론을 곁해서 진행되기에 무용수에게 유용한 수업인 듯 하다.

수업 중 일체의 잡담이나 개인적인 얘기는 있을 수 없고 여분의 1분도 수업과 관련된 예시를 보이는 등 교수와 학생 모두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 숨 들릴 틈이 없이 진행된다. 어쩔 땐 너무 삭막할 정도로 수업만 열중한다. 강의를 완벽하게 준비해 온 Rebecca교수가 먼저 연습실에서 몸을 풀고 있으면 학생들은 눈인사만 나눌 뿐 조용히, 그러나 자유롭게 워밍업을 하면서 수업을 준비한다. 막상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Rebecca교수에게 달려가 전날 연습도중에 입은 부상 부위를 치료받으면서 장난도 친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미국의 기본적인 Rule을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 같다. 지난번 대학원 수업일환으로 Dance Event에 뉴욕의 저명한 안무자의 특강이 있어서 우연히 관람하게 되었을 때도, 한국식의 환영 인사라든지 소개말이 없이 바로 강의에 들어가는 게 인상적이었다. 서로가 이벤트에 참가한 목적과 신분을 알고 있으니 불필요한 인사말로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1초도 허비하지 않는다는 기본개념에 기초한 것 같다.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누워있거나, 몸을 풀거나 하며 편안하게 인사해 보고 있는 내가 더 민망스러웠지만, 학과장이나 안무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비디오를 보면서 안무의 특징을 설명하는 도중에도 학과장은 직접 비디오를 준비해오고, 자료를 프린트 해 나눠주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려주는 등 수업보조 역할이 당연한 듯 한 행동이고,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수업이라 각자가 싸운 점심을 먹으면서 안무자의 설명을 듣고, 안무자의 말과 퍼포먼스에 뒤집어질 듯 웃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겐 신선할 수밖에 없었다.

천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시애틀에서,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워진 미국의 학교생활, 정말 영화 같은 장면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면서도 한편 불편한 마음과 좁아지는 어깨는 왜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탄생계절이 시작된 여기서 솟구치는 신명과 봄이 주는 부지런함으로, 새로움으로 꿈을 계속 이뤄나가리라 다짐해 본다.



몸의 균형과 근육강화, 무용 상해예방과 재활프로그램으로 이용되는 필라테스 클래스 수업장면.

## 500년 전 우리 음악인의 가훈(家訓)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강사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듯이 가정에는 가훈이 있기 마련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전통사회의 음악인들은 어떠한 가훈으로 가정을 지키며 가족을 이끌어 갔을까.

조선조 세종 때의 음악인으로 박연(朴堧)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음악 학자이자 행정가로 율관을 제작하고, 편종과 편경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례악과 조화악을 정리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유고집으로 <난계유고>가 있는데 그 속에는 가훈 17조가 전한다.

조선 영조 때의 성리학자로 <율곡전서>를 편찬한 이재(李穡)는 박연의 가훈 17조를 보고 “숙독하여 음미하면 한권의 <소학>책과 다름이 없고” 또한 “인륜을 밝히고 몸을 근신하는데 힘을 다하라는 뜻이 명백하다”고 찬사하였다. 이 가훈은 500년 전 우리 음악인의 한사람으로 후손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시대의 서양음악인과 무엇이 다른지 서로 비교되는 좋은 자료이다. 그가 남긴 가훈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조.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얼굴빛으로 분개하여 잘못을 누우치고 고치기를 바라지 말며, 소리를 지르고 종아리를 쳐서 부자간의 정을 성글게 하지 말라.

2조. 친족을 반갑게 여기고 일가들과 화목하게 하여 좋은 가풍을 세워서 동료들로 하여금 우리 집에서 법을 배우도록 한다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3조. 가정에서 처신하는 도리는 화평하고 유순한 점이 제일이다. 그리고 서로 어기고 서로 다투는 불상사는 소첩한테서 일어나기 쉬우니 삼가 조심하여라.

4조. 아내가 죽고 재취했을 경우 전후실의 아들이 다투어서 집안에 어지러운 일이 항상 따른다. 바라건대 나의 자손 중에서 혹시 불행하게 상처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처의 자식이 조상을 받들 자가 있으면 다시 후처를 얻지 말고, 다만 단산(斷産)한 여자를 구하여 살림을 맡게 하면 이것 또한 가문을 보존하는 하나의 큰 절도(節度)인 것이다.

5조. 나의 자손 중에서 불행히도 후사가 없는 자손이 생기거든 반드시 본종(本宗)에서 양자(養子)를 구할 것이며, 본종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든 동종(同宗) 중에서 잘 살펴 선택하여 뒤를 잇도록 하여라.

6조. 일가친척들 가운데에 때가 지나도록 출가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집안이 가난하여 성취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재산의 정도를 잘 생각하여 각각 분수에 알맞게 금전과 재물을 내놓아



물자를 갖추도록 하여 때를 잃지 말게 하여라.

7조. 상례는 주자 가례로 하되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을 손상시키지 말며, 너무 태만하고 가볍게 하여 예의에 어긋나서도 아니 된다.

8조. 무릇 제사에 쓰는 제물은 살았을 때와 같이 정결하고 간략하게 하여 삼년을 마치면 된다.

9조. 착한 일을 쌓은 집에는 그 자손에게 경사가 돌아오고 착하지 않은 일을 쌓은 집에는 그 자손에게 재앙이 돌아간다고 하였다. 대저 일에는 착한 것과 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따를 바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10조. 항시 바른 사람과 단정한 선비로 짝을 짓되, 경험이 많은 노인이나 수준급에 달한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하여 음주로서 늘어지게 취하여 노래하고 춤추며 용렬한 무리와 매일 접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11조.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매를 팔에다 올려놓고 개를 키우는 것으로 소일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으면 처자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는 것이니 매우 부끄러운 행동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삼가 망령된 취미를 가지지 말고 몸을 온전히 보존하여 문호(門戶)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12조. 입(口)은 화와 복의 출입구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남과 대화할 때에는 옛 현인의 사적에서 법으로 삼을 만한 것이나 경계할 만한 것만을 취하여 환답하여라.

13조. 일가친척이나 친구가 소첩에게 빠져있는 집에는 삼가 경솔히 드나들지 말라. 또 과부 집에 어진 자손이 있어서 너희들 집에 불러 상종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삼가 하라.

14조. 여색은 가장 명예와 절조에 관계된 것이니, 경박하고 소홀히 하지 말라. 만약 한때의 욕망으로 경솔하게 침범하면 마침내 종신(終身)에 흠을 남길 수 있으니 후회해도 쫓을 수가 없는 일이다.

15조. 무릇 공사간의 연회 모임이나 환락 장소에는 불일이 없거든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일찍이 적당한 핑계를 대고 먼저 나와라. 또한 연회석에서 진퇴(進退)하고 좌립(坐立)할 때 삼가 기생들 곁에는 가지 말라. 만약 어떠한 의혹을 받게 되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니 무엇으로 변명하겠느냐? 삼가고 삼가 하라 이것도 몸을 다스리는 하나의 큰 절도인 것이다.

16조. 입신하면 공무에 종사하게 될 텐데 사족(蛇足)의 문제로서 흔적이 애매하여 분명치 못하면 일을 삼가하고 그 단서를 말하지 말라.

17조. 우리 집은 청렴하고 소박하여 너희들에게 바라는 바 가훈을 만들어 장래에 영원히 할 따름이다.

음악과 삶 그 가운데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어떠한 가훈으로써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을까? 지금 나의 습(習)이 곧 가훈이 아닐까 한다.

## 처용무(處容舞)

흥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신라 현강왕 때의 처용설화에서 비롯된 가면무인 처용무는 현재 전하는 궁중정재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춤이다. 처용무는 궁중무용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신라 때부터 전하는 궁중정재의 하나인 가면무이다. '오방 처용무'라고도 말한다.

이 춤은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

를 부르며 춤을 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구려 때 충혜왕조와 신우조에 처용희를 즐겼다는 기록이 전하며, 용재총화에는 처용무가 본래 흑포 사모에 적색가면을 쓰고 춤을 춘 1인무(舞)였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 후 5명이 추는 처용무로 확대되었고, 악학계법에 있는 학연화대처용무합설이라 하여 선달 그믐날 나례의식 때 추던 장엄한 의식 절차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춤은 학무, 연화대, 처용무 3가지가 합쳐져 화려한 처용무로 변한 것이다.

처용무는 동, 서, 남, 북과 중앙의 다섯 방향을 상징하는 청, 홍, 황, 백, 흑색의 옷을 입고 추는데 동은 파란색, 서는 흰색, 남은 붉은색, 북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이다.

춤의 내용은 음양오행설의 기본 정신을 기초로 하여 악운을 쫓는 의미가 담겨있고, 춤사위는 화려하고 현란하며 당당하고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씩씩하고 호탕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가면과도 조화를 이

두고 있다.

통일 신라에서 고려 후기까지는 한 사람이 춤을 추었으나, 조선 세종(1418~1450)대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성종(1469~1494)대에는 더욱 발전하여 궁중의식에 사용하게 되었으나, 그 후 조선 후기까지는 노래의 가사나 음악을 바꾸어가면서 전승되어 왔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기면서 이 춤이 중단되었던 것을 1920년대 말 이왕직 아악부가 창덕궁에서 공연하기 위해 재현한 것을 계기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이 광복 후 국립국악원에 의해 계승되다가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 육성되고 있다.

처용무는 다섯 무원이 청, 흥, 황, 흑, 백의 단의를 오방에 맞추어 입고 서서 처용가면과 사모를 쓰고 흥록홍배, 초록천의남오군, 흥방소, 황초상, 금동혁대를 띠고 백한삼(白汗衫)을 끼고 백피혜(白皮鞋)를 신고 춤을 춘다.

수제전에 맞추어 두 팔을 허리에 붙이고 청, 흥, 황, 흑, 백의 차례로 들어와 일렬로 북향으로 서고 음악이 그치면 '처용가'를 부른다. 다시 향당교주하면 처용 5인이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소매를 들었다가 다시 허리위에 놓고 허리를 구부려 마주본다. 한쪽 발을 안쪽으로 들어 다시 북쪽을 향하여 섰다가 허리를 젖혀 마주본다. 청, 흥, 흑, 백은 모두 반대쪽 발을 먼저 들고, 황은 왼발을 먼저 들어 춤을 추기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처용 5명이 일렬로 나란히 서면 일제히 뒤로 물러서 북향하고 선 다음 우편을 노래한다. 다시 수제전을 연주하면 낙화유수를 춘 다음 차례로 돌아 춤추며 퇴장한다.

처용무의 배경 음악은 발생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러 기록에 나타나지만 당시의 악곡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단지 조선 세종 때 윤희가 처용가 곡절에 따라 개작하였다는 '봉황음'의 악보가 세종실록 권 146에 전할 뿐이다.

처용의 탈은 모시 또는 옷칠한 삼베로 껍질을 만들고 채색은 적면 유광으로 후덕한 모습으로 한다. 사모는 대로 망을 엮어 종이로 바르며 두 귀에는 주석고리와 남주를 걸고 복숭아 열매와 가지를 단다.

처용무는 가면과 의상, 음악, 춤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무용예술로 우리조상들의 덕망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며, 춤사위나 반주음악 또는 노래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깨끗하게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 물 위의 길

— 배지민의 그림 〈머물다〉 —

김형술 · 시인

바람 세차게 부는 날엔  
영도다리로 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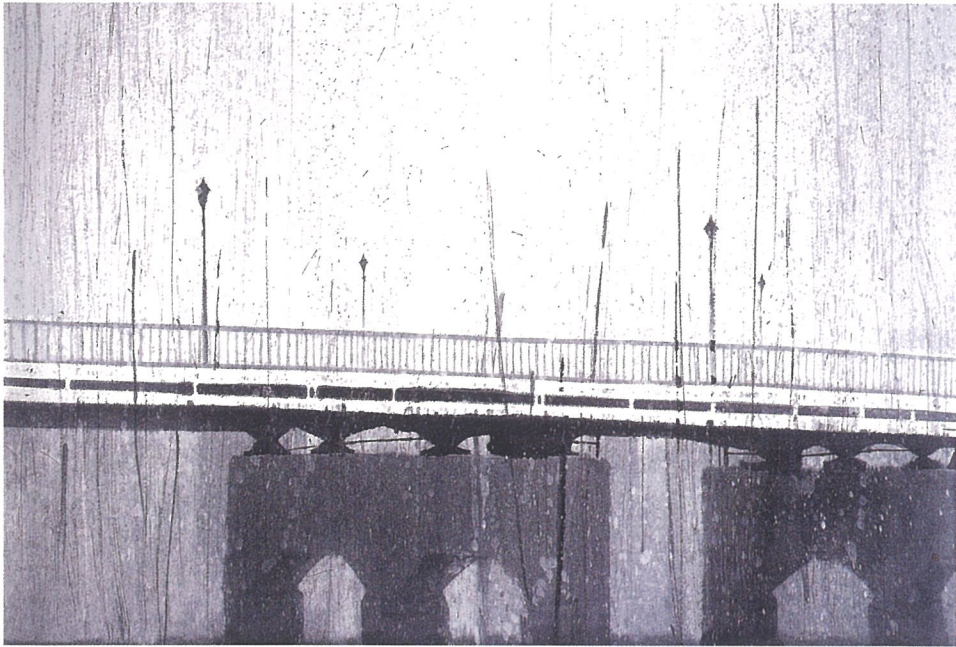
흔들리는 바다를 건너기 전에  
다리 아래 숨은 점집에 들어가  
내 안에 그리움들 얼마나 남아 흔들리는 지  
눈매 서늘한 무녀와 마주 앉아 볼까

숨가쁘게 정박하고 또 출항한 시간들  
어느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채  
거친 해류 따라 떠도는 이름들  
바다새처럼 물 위에 내려앉는  
햇빛에게나 건네주고  
빈 마음으로 먼 바다 섬이 될까  
—졸시 ‘바람부는 날’ 전반부

영도다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다리이며 부산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전쟁과 피난민과 신산스런 삶의 애환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 혹은 지명의 의미를 넘어 부산 사람 개개인의 지난 삶의 기억들이 마디 마디 배어있는 친숙하고 정겨운 곳이어서 부산사람치고 영도다리 위에 한 번 서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큰바다로 향하는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자 떠났던 바람들이 돌아와 잠드는 곳이어서 만남과 헤어짐에 관한 생각들, 삶과 죽음에 관한 골똥한 생각들이 필요할 때면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곳. 어떤 이에게는 슬픔으로 어떤 이에게는 용기로 또 어떤 이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선명하게 기록된 장소로 기억된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엔 바다와 섬과 물새와 햇빛이 스며있고 떠남과 돌아옴, 정착과 유랑에 관한 크고 작은 사유들이 숨겨져 있다. 다리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고 파도 휘도는 다리 아래의 바다를 내려다보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이 반드시 가져야하는 어떤 절차 혹은 신성한 제의이기도 하다. 그럴 때 영도다리는 단순히 섬과 육지를 잇는 기능적인 역할 뿐만이 아니라 부산사람들의 가슴을 씻고 어루만져서 막힌 가슴을 뚫어주고 험클어진 마음을 풀게하여 영도다리 밑을 흐르는 해류처럼 힘찬 삶의 의지를 되돌려주는 신성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지에 먹으로 그려진 그림 속 영도다리엔 비가 내린다. 다리 위엔 아무도 없고 불꺼진 가로등만 빛 즐기와 몸을 쉬고 있다. 먹의 색감이 주는 느낌으로 인하여 고즈넉하게 가라앉은 이 풍경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익숙한 장소와 경험이 가져다주는 공감각의 힘이기도 하다. 먹의 농도와 붓놀림으로 인해 생긴 얼룩은 비에 젖은 교각이며 바다, 하늘의 질감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 얼룩은 세월의 얼룩이며 한 많은 세월을 견뎌내고 살아낸 시간 속에 스며든 삶의 무늬이자 결이기도 할 것이다. 올 5월에 열렸던 배지민의 개인전은 다리와 다리 위의 하늘과 다리 아래를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배지민의 그림 <머물다. 2050x1430mm, 장지에 수묵, 2007>

화가 자신의 마음결을 선명하게 드러낸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육중한 교각의 형상과 그 교각에 부딪치거나 감싸안으며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물의 움직임이 활기차고 대범하면서도 또한 섬세함을 잃지않은 붓놀림에 의해 표현되어 있었던 것. 그런 이미지들은 머물고 흘러가는 것들에 관한 화가 자신의 사색이기도 할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큰 세월을 한 자리에 서서 견디는 다리가 표상하는 머물과 결코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흘러가는 물의 유동성은 시간의 은유에 다름 아니다. 움직이지 않고 머문 듯 하지만 실은 끊임없이 소멸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의 운명은 또한 그림 속의 영도다리가 처한 운명과 어우러져 깊고 애잔한 회한의 느낌을 자아낸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현존하는 모든 사물들 속엔 다리가 있다. 과거와 현재, 어제와 오늘 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린 채 죽음과 신생 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물 위의 길 하나가.

어제는 오늘 속으로 흐르고  
 오늘은 또 어제의 푸른 난간이니  
 낡은 옷소매에 매달리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리운 것들의 사이를 건너볼까

아무 그리움 없이 천년을 건너가는  
 빗줄기나 햇빛이나 되어볼까

- 줄시 '바람부는 날' 후반부.

# 연극과 구경

유상훈 · 연극배우



10분내에 공연을 마쳐야 하는 부산국제연극제 10분연극제는 짧은 시간에 여러 연령층과 지금의 사회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우리는 가수보다 노래 못하고 무용수보다 춤도 잘 못 추는데 무대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한다. 공연이 끝나면 10살배기 아이서부터 온갖 연령 직업 불문하고 연극을 평하는데 거침이 없다. 늘 상대하는 말과 행동의 표현양식이고 생명이 갖추는 시간 공간 인물에 대한 삼위일체의 측도(測度)는 산자(生者)이면 누구나 쉬지 않고 소용되고 있는 것들이니 이를 주(主)도구로 이루어지는 연극이란 행태(行態)가 무어 그리 낯설겠는가. 표현의 욕구에서 그 표현

의 공공의 확인까지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운 장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허나 바로 이것이 꺼지지 않는 연극의 강인한 생명력이 아닐까 싶다.

처음 구경이란 걸 한 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외할머니를 따라 가설무대에서 펼쳐지던 여성국극 같은 것을 보러 간 일이다. 경제개발 초기의 당시 우리나라 밤을 수놓았던 30w, 60w 가정용 전구에 익숙하다가 밝은 조명아래 색색깔 한복들의 움직임은 판 세상이었다. 눈부시게 즐비한 노점상들의 가스등불을 지나 시내에 위치한 영화관이란 곳을 가 본 것도 그 무렵 외할머니를 따라서였다.

그때 불빛에 대한 기억은 또 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부산항 밤배를 타기 위해 간 항구에서였다. 시커멓게 출렁이는 물결 따라 점멸(點滅)되어지는 눈부신 항구의 빛들 속에 우쭐거리는 배들의 움직임은 공포스러웠다. 따로이 홀로 사시며 왜 밤이면 외할머니는 휘회 마실을 나다니셨는지, 어머니는 왜 자식 하나만을 데리고 표표히 부산항 밤배를 타고 떠나야만 했는지 내 알 바 아니었다.

TV나 각종 가전제품들이 일반가정에 널리 보급되기 전 아동들이 즐겨 찾던 만화방이란 곳이 있었다. 거기서 다섯 권인가 몇 권인가를 보면 만화방에 붙은 쪽 방에서 만화영화나 프로레슬링을 TV로 볼 수 있었다. 형과 함께 다락방에 숨어 밤새 '고우영' 삼국지 만화를 돌려보던 재미는 잊을 수 없다. 동네 2편 동시 상영 영화관에서 보았던 영화 '해저 이만 리' '흑성탈출'로 넘나들었던 시간과 공간의 저 너머 세계들. 또

한 중국 무협영화 '왕우'의 외팔이 시리즈는 우리의 전쟁놀이를 비장감 넘치게 만들었고, 그러한 감동이 한편으로 끝나지 않는 휴식시간동안 흘러나오던 유행가 가락들은 지금도 별 노력 없이 '가요무대' 프로에서 나오는 옛 노래들을 쉽게 따라 부르게 만들었다. 다시 시작하던 영화의 주인공 목소리가 늘 변치 않던 한국방화들. 세월이 흘러 일요일 오후 잠깐 구경반의 여유를 안겨주었던 프로 야구도 생겨났다.

연극을 시작하고 연습이 주로 저녁에 이루어지니 남의 공연을 보러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연극을 쉬던 시절 혹은 여행의 기회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공연관람의 시간을 만들게 된다. 한때 미국에 잠시 머물며 구경을 다닐 기회가 있었다. 공연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공연은 그 공연다웠다. 연극, 오페라, 뮤지컬, 재즈발레, 연주회 등등 몇 시간의 취침시간을 빼곤 생존과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이었다. 케익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라고 달려가 제일 싼 표 3층 뒷자리에 앉아 보았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코러스들의 합창은 나에게 천상의 울림이었다. 허나 내가 가장 재밌게 본 건 정작 공연의 종류에 따라 변하여 등장하는 관객들의 다양한 차림새였다. 재즈풍의, 정장풍의... 거기예다 한겨울 막간 휴식시간동안 야외 가스난로등 아래서 나누던 한잔의 포도주...

국내 우수(有數)의 공연을 부산 KBS홀에서 하는걸 어떤 이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나를 초빙하여 같이 보러간 적이 있다. 근데 그는 공연 중간에 극장을 나가 버렸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어느 배우도 그 사실을 진실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이 극으로 진행되고 있는걸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지금껏 본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의 연기는 일본의 어느 극단에서 공연한 '벡베트'에서 세 마녀 중 한명의 연기였다. 거저 내 생각에 "아마 그녀는 중년을 넘어서는 저 나이까지 극단에서 한번도 큰 역을 맡지 못했을 것이며 그기에 거저 자기 역을 그야말로 아무 사심없이 주지도 받지도 않는 정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 저 처연한 움직임...".

1370년 일본 우과의 부흥을 외치며 활복 자살한 '금각사'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객석에 앉아 사념에 잠긴 한 장의 사진.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논하는 배우의 반복의 실체. 시인 릴케와의 6개월간의 사랑을 책으로 펴냈던 여류 피아니스트는 그와 함께 간 연주회에서 연주를 감상하는 그를 보고,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는지 연주를 듣고 있는 그가 연주를 하고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 공간에는 연주자와 릴케만이 있더라고 적고 있다.

얼마 전 '부산국제연극제'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이 직접 참가하는 '10분 연극제'라는걸 구경했다. 각 팀마다 10분내에 공연을 마쳐야 하는 행사로 10세 전후의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주부들, 복지관의 노인 분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여 짧은 시간에 여러 연령층과 지금의 사회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배우가 분하던 가상적 인물의 실제 모델들이 나와 시연(試演)을 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마치 연극의 실제인물들이 나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감동들을 안겨 주었다.

실로 공간에서의 공감(共感)의 여지는 방대하고 개별적인 것들의 조합일 수 있겠다. 그 만큼에 연극적 재료 또한 넓고 방대하다는 얘기겠지.

## 도심에 자리잡은 자연속의 문화공간 구덕문화공원

구덕산의 울창한 자연경관 속에 자리잡은 구덕문화공원이 도심속의 문화체험 및 자연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대신동 도심에서 멀지 않아 평소에도 시민들의 등산로로 이용되는 구덕문화공원은 개관 이후 새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새로운 문화쉼터로 자리잡았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기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구덕수목원이란 명칭에서 구덕문화공원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시민들을 맞고 있다.

구덕문화공원에는 지난 2004년 11월 이 곳에 가장 처음 들어선 교육역사관을 비롯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 다목적관 등 4곳의 문화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색전시관인 교육역사관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교육제도와 교육활동을 알 수 있는 사료 6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각 시대별 교과서를 비롯 옛 학용품 및 교육자재, 사진 및 영상자료 등과 함께 1960년~1970년대 초등학교를 그대로 재현한 추억의 교실이 한켠에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 때 그 시절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선인들의 삶과 지혜가 깃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생활관은 지게와 탈곡기, 도리깨 등 농기구와 우장, 망태 등 짚풀용품, 화로, 다리미 등 주거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민속품 400여점이 용도별로 전시되어 있다. 민속생활관 한 쪽에는 초가집에 살림살이를 배치한 초가모형을 설치, 옛 조상들이 살았던 주거양식을 설명해 놓고 있다.



구덕문화공원은 올해부터 어린이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은 구연동화 시연중인 아동문학가 강기흥씨.)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전시관인 교육역사관.



목부작, 석부작을 비롯 아열대 식물과 기암 괴석들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목석원예관.

유리온실로 꾸며진 목석원예관은 나무나 돌 위에 이끼나 풍란 등 식물의 뿌리를 고착시킨 목부작, 석부작을 비롯 아열대 식물과 수중식물,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계를 연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시관으로 이용되는 다목적관은 1층 상설전시관, 2층 기획전시관으로 나뉘어 지역작가들에게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다.

다목적관 아래에는 인공폭포와 연못이 조성되어 시원한 경관을 선사하고 있으며, 지석과 동물석상, 멧돌 등이 전시된 옛돌광장과 만남의 광장, 수생식물 군락원 등 3개의 테마광장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구덕문화공원에서는 올해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원 체험프로그램 '서연아 문화공원 가자'를 운영하고 있다. 5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서연아 문화공원 가자'는 서구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을 대상으로 구덕문화공원 내 교육역사관과 민속생활관, 목석원예관을 둘러보고, 구연동화 배우기와 숲 체험하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구연동화 배우기에서는 아동문학가 강기홍씨와 변경희씨가 지도교사를 맡아 재미나는 구연동화의 세계로 안내하며 숲 체험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숲해설가협회 회원들의 해설로 나무 관찰하기, 환경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17개 유치원 9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신청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컸다. 구덕문화공원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석부작을 시민들이 직접 배워보는 석부작교실이 열리기도 했다. 매주 토요일 3차례 열렸던 석부작 교실은 거제자연예술랜드 원장이자 목석원예관 실내조경을 연출했던 이성보씨가 강사로 참여, 평소 석부작에 관심이 있었던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덕문화공원은 요즘 들어 주말 평균 400~500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색 전시관에 자연과 어우러진 색다른 휴식공간으로, 구덕문화공원은 어린이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도심 속 새로운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문의:구덕문화공원(240-4711~2)

## 이 시대 아버지의 희망을 노래하는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 아버지의 애환과 희망을 노래하는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 시대 아버지의 애환과 희망을 노래하는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지난 2005년 8월 결성되어, 창단 2년이 채 안된 새내기 합창단이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만큼은 어느 프로합창단에 뒤지지 않는다.

바다와 산, 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부산을 상징하고 가정의 화목을 의미하는 '푸른색'에서 그 이름을 부친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은 현재 30대에

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 32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버지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가정의 위기가 대두되는 요즘, 올바른 아버지 상을 정립해 화목한 가정을 이끌자는 취지로 결성했습니다.”

차인철, 김정도, 신성철, 최동식과 더불어 창단 멤버로 활동해온 이재상씨는 현재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다. 우연히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된 '아버지합창단'의 취지에 공감해 한때 타 아버지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거기서 만난 창단멤버들과 뜻을 모아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을 창단했다.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은 매주 월요일 시민회관 연습실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단원들간에 화음을 맞추는 연습을 겸한 자리인지라 바쁜 직장 생활속에서도 100% 가까운 참석율을 자랑한다. 현재 부산가톨릭합창단, 옥샘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성훈씨와 양산시립합창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는 정희석씨가 노래지도를 맡아 실력향상을 돕고 있다.

올해 72세의 김종철 단원은 합창단의 가장 맏형이다. 지난해 은퇴이후 취미생활을 찾던 중 우

연히 신문기사를 통해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그는 요즘 노래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마냥 즐겁기만 하다.

현재 합창단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는 김능희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의 권유로 합창단에 가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실력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는 특히 “직장 생활로 받는 스트레스를 술이 아닌 노래로 풀 수 있어 무엇보다 좋다”며 “노래로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니 무엇보다 가족들이 좋아한다”며 합창단 활동에 만족감을 표한다.

지난 5월 언론에 소개된 합창단 기사를 접하고 바로 합창단에 가입했다는 노화량씨. “관객들 앞에 섰던 첫 연주회를 잊을 수 없다”는 그는 공연이 끝난 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합창단 활동에 무관심했던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 무엇보다 기뻛다고. 지금은 가끔 딸의 반주에 맞춰 노래실력을 뽐내기도 한다.

한 가족의 가장이자 아버지, 직장인으로서 갖는 동질감으로 여느 단체보다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남다른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은 그래서인지 단원들의 가족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지난 5월 20일 있었던 이재상 단장의 자녀 결혼식에서도 이재상 단장의 부정을 대신해 단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랑의 하모니를 들려주기도 했다.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은 지난해 11월 동래문화회관에서 첫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가곡을 비롯 민요와 가요, 동요, 트로트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중과 하나되는 무대를 만들었다.

특히 첫 연주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과 회원들의 성금으로 모은 사랑의 쌀 50포대는 연말에 금정구 소년소녀가장 50세대에 전달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가톨릭센터 화요음악회에 출연, ‘아버지가 부르는 봄노래’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봄의 앙상블을 들려주기도 했다.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은 오는 11월 10일 금정문화회관에서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앞으로는 사회 보호시설이나 병원, 교도소 등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에 힘을 예정이다.

“올해는 단원 확충과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로 합창단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이재상 단장. “노래를 좋아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든 환영한다”는 그는 앞으로도 합창단 활동을 통해 이 시대 아버지들의 푸른 희망을 노래할 예정이다.

■문의: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cafe.daum.net/fatherchior, 019-537-0337, 011-1753-0036)



매주 월요일 정기모임을 갖는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은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100% 가까운 참석율을 자랑한다.



오는 11월 두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은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 음악을 통한 사랑 나눔에 힘을 예정이다.

## 여름의 낭만과 열정이 넘치는 제 3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



부산국제해변무용제는 바다를 배경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춤들을 만날 수 있는 여름 무용축제이다.

부산의 여름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피서인파로 북적인다. 여름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부산국제해변무용제가 7월 31일 개막을 앞두고 행사준비가 한창이다.

아름다운 부산의 여름바다와 춤이 어우러지는 부산국제여름해변무용제(추진위원장 김상훈)는 2005년 문화도시 부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된 여름문화상품이다.

올해 제 3회째를 맞는 2007부산국제해변무용제는 ‘꿈의 바다로...축제의 감동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국제 규모의 문화예술행사가 부족한 부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무용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여름 시즌 휴양지에서 무용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부산국제해변무용제를 통해 국내에 특화된 공연예술로,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휴양지 예술 축제로 가꾸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 2회 행사를 끝낸 순간부터 2007년 무용제 구상에 들어간 부산국제해변무용제 추진위원회 김정순 집행위원장은 2007년에 들어서면서 집행위원들과 여러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2007년 행사를 준비해 왔다.

이번 축제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우리나라를 비롯 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중국, 핀란드 등 9개국 33개 단체의 참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와 홍보를 서두르고 있다. 해외팀이 많은 만큼 출입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등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행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부산국제해변무용제는 야외 공연이 많아 추진위원회 식구들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올해는 7월 31일 개막식을 시작하여 8월 3일까지는 광안리해변 특설무대에서 야외공연을 선보이게 되고, 8월 4일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공연을 가진다.

특히 이번 ‘제 3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에서는 해외 초청작과 국내 초청작 이외에 대중적인 작품으로



단체의 영상 자료를 심의 선별하여 자유참가작 단체들을 선정, 꿈의 바다 축제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했다.

춤의 장르도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재즈댄스, 탭댄스, B-Boy 등의 다양한 장르로 구성, 볼거리가 풍부하다. 국내에서는 부산시립무용단(한국)을 비롯해 대구시립무용단(현대), LDP(현대), NOW무용단(한국), 김진홍전통춤연구회(한국), 탭꾼(탭댄스), 김복선발레단(발레), 신무섭무용단(발레) 등 8개팀의 참가가 확정되었다.

외국에서는 하인츠 쉬포엘리 예술감독이 이끄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발레단 'Zurich Ballet' (7월 31일~8월 1일),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시에 있는 컨템포러리 발레단 '인스부르크 주립발레단' (7월 31일~8월 1일), 네덜란드의 현대무용단 'Galili Dance Company' (7월 31일~8월 1일), 독일의 'Disconnection Dance Project' (7월 31일~8월 1일), 핀란드의 'Compania Kaari Martin' (7월 31일~8월 2일),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IRELAND Dance Theatre' (8월 2일~8월 4일), 스위스의 현대무용 컨템포러리 발레단체 'Philippe Olza Dance Company' (8월 2일~8월 3일), 중국의 'YUWEI Dance' (8월 2일~8월 4일), 미국의 'NY2 Dance' (8월 3일~8월 4일)가 참가한다.

특히 올해 무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광안대로를 배경으로 특설무대가 세워져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부산 시민들과 피서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무용을 선보이게 된다. 지난 4월 광안리 해수욕장에 개관한 바다·빛 미술관이 뿜어내는 화려한 야경과 세계 각국 무용단이 펼치는 열정적인 춤사위가 있는 광안리의 여름바다는 상상만으로도 큰 즐거움이다.



제 2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에서 큰 호응을 받은 벨레댄스 팀.



제 3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 개막공연에 참가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연습 사진.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첼로수석 양욱진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음악하게 되어 너무 기뻐요. 꼭 서울에 가야만 수준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산 음악애호가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요.”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첼리스트 양욱진(34)씨. 양욱진씨는 우리나라 첼로계의 거장인 양재표 선생의 아들로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첼로와 인연을 맺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매네스 음대와 동대학원, 뉴욕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학구적인 첼리스트로 유명하다.

지난 3월 2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객원연주자로 부산을 찾은 양욱진씨는 그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음악애호가들과의 열정적인 만남을 잇을 수 없다.

“일찍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터라 사실 부산에 대해

잘 몰랐었어요. 미국에서 사귄 친구의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에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만난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정성흠씨와는 트리오를 구성해 미국 내에서 많은 연주활동을 했다. 2005년 정성흠과 부산과 창원에서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으로 듀오연주회를 가지기도 했다.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대학 교수 및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뉴욕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아카데미 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등으로 활동하며 미국 내에서도 주목받아온 양욱진의 부산행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선택한 제자를 위해 평소 그를 아껴온 세계적인 첼리스트 카터 브레이 교수가 정성스럽게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다.

그는 요즘 부산을 선택한 순간의 첫 마음처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주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욱 땀을 흘리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산시립교향악단 김동욱 악장, 수석 단원들과 의기투합해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를 구성한 그는 6월 10일 창단 연주회를 갖는다. 6월 1일에는 그를 부산으로 이끌게 한 친구 정성흠씨와 듀오 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 첫 개인 작곡발표회 여는 부산문화회관 공연담당 송필석

2007년 2월, 공무원 출신 음악박사 1호로 화제를 모은 부산문화회관 공연담당 송필석씨가 6월, 가톨릭센터 화요 음악회 무대를 통해 첫 개인 작곡발표회를 연다. 공연제목은 송필석의 음악여행 '첼로가 그리는 저녁풍경'.

“어렵게 시작한 공부가 작은 결실을 맺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며 삶을 정리하고 목표를 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중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일상의 음악여행을 즐기고 싶어 작곡발표회라는 제목보다는 음악여행이라는 제목을 선택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작품들은 2002년 이후 발표해온 합창곡과 가곡, 기악곡 등 14곡.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송필석씨의 음악활동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그는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꿈 많던 음악도였다. 작곡가 최석태씨가 그의 절친한 친구이다. 고 3시절 음대 진학을 준비하던 친구를 지켜보



며 음악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그는 용기를 내어 영남대학교 작곡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당시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악기 레슨을 받을 수 없었던 그는 입시곡을 신문에 그려 외워 시험에 응시했고 음대진학 후에 피아노, 플룻, 기타, 드럼, 색소폰 등 대부분의 악기를 독학으로 배웠다.

그러나 생활을 위해 음악공부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악을 공부한 그의 특이한 이력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동안 부산시청 기획실, 문화예술과 등 부산의 문화행정과 예술진흥 업무를 주로 맡아온 그는 42살이라는 나이에 예술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경성대학교에 진학해 2007년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폭넓은 창작 활동을 위해 친구 최석태 씨와 젊은 시절 음악에 대한 꿈을 함께 키운 친구들과 작곡 모임 '임태'를 결성하기도 했다. 그의 음악은 감미롭고 애절한 선율로 한국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있다.

“많이 불러 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곡들, 합창곡을 발표하고 싶습니다”는 그는 앞으로 영역을 더욱 넓혀 칸타타, 오페라, 뮤지컬 작곡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 2007년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상해박물관 소장 중국 고대 청동기·옥기展

6월 15일(금)-9월 9일(일) 부산박물관 특별전시실



주기(酒器)로 사용되었던 '작'



옥항(玉璜)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고 부산광역시와 상해시 자매결연 14주년을 맞아 부산박물관에서는 상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 고대 청동기·옥기展을 개최한다.

중국 고미술의 진수인 고대 청동기와 옥기 95점을 국내 최초로 전시,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시민들에게 중국 고대(BC 4,000년~AD 220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특별한 전시이다.

중국 청동기 시대는 역사에 기록된 하(夏), 상(商), 주(周)의 세 왕조를 거치며 1,500여년 동안 이어오면서 각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하게 발전해왔다. 고대의 청동기는 주로 지배계층의 제례, 연희 등 의식에 사용되는 용기로 제작되어 통상 예기(禮器)라 불렸으며, 각 귀족계급이 사용하는 청동예기의 종류와 수량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정해졌다.

기원전 221년 진(秦)이 중국을 통일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이루면서 청동기는 의례적 기능을 상실하고 로(爐), 등(燈), 진(鎭)과 같이 주로 생활용품 위주로 사용되다 동한(東漢)시대 이후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역사의 뒷안길로 서서히 사라졌다.

옥기는 중국 선사시대 이래로 영성과 권위의 상징으로 여러가지 장식기와 의식기로 사용되었다. 동북 요하유역에 위치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홍산문화(紅山文化, 기원전 4,000년~3,000년)에서는 옥룡, 옥잠 등 동물형상과 추상적인 모양을 갖춘 옥기가 등장했으며 양저문화(良渚文化, 기원전 3,200년~2,200년)의 옥기는 그 수량과 종류가 풍부하며 옥공예의 치밀함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한국 및 중국의 학자를 초청해 갖는 특별초청강연(6월 15일)과 '동아시아의 청동기와 옥기 문화'라는 주제의 학술강연회(7월 15일), '중국의 고대문화와 청동기'란 주제의 박물관 성인강좌(7월 10일~31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 소품(小品, piece)의 세계 8

박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수록한 카라얀의 앨범

**교향시(symphonic poem)** 리스트(F.Liszt)에 의해서 창시된 교향시는 묘사적인 표제가 붙은 단일 악장 형태의 관현악 작품이다. 리스트는 1854년에 '타소(Tasso)'라는 작품을 서곡으로 작곡했는데,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서곡이라는 말 대신에 '교향시'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교향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베토벤은 연주회용 서곡으로 '에그몬트(Egmont)'를 썼고, 멘델스존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헤브리디즈섬의 인상을 '핑갈의 동굴'이라는 서곡으로 발표했다. '환상 교향곡'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베를리오즈(H.Berlioz, 1803~1869)는 3곡의 교향시를 발표했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R.Strauss, 1864~1949)는 리스트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형식과 다양하고 광범한 내용의 작품들(돈 판, 킬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돈키호테, 영웅의 생애 등 10곡)을 써서 교향시의 역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세웠다.

19세기의 국민악파는 교향시라는 비옥한 토양을 흡수하면서 걸출한 작품들을 쏟아 내었다. 스메타나(B.Smetana, 1824~1884)의 '나의 조국'이 이를 증명한다. 프랑스의 거장인 생상스(Saint-Saens, 1835~1921)는 '죽음의 춤' 등 4곡의 뛰어난 교향시를 썼고, 댕디(B.D'Indy, 1851~1931)도 '산정의 여름날', '해변의 시' 등 가장 프랑스다운 교향시를 발표했고, 댕디와 같은 시대에 활약한 인상파음악의 귀재 드뷔시(Debussy, 1862~1918)는 '바다'라는 걸작을 남겼다.

교향시에서 다루는 소재들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따라서 이 장르의 작품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관현악법이 매우 화려하고 다이내믹하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실내악처럼 조용하고 서정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웅대한 스케일에 담긴 장려한 음악도 있다.

화성은 과거의 조에서 떨어져 나와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관현악 규모와 음역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악기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금관악기 부분에서는 튜바가 추가되었고 목관악기의 수도 증가했고, 타악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아울러 그 사용의 빈도수도 훨씬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교향시곡이라는 형식의 음악은 오케스트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준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 박호성과 김영임이 만나는 11시 해피콘서트

6월 8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저녁시간대에 공연장을 찾기 힘든 주부와 여성청중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2007년부터 의욕적으로 마련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네 번째 무대가 6월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3월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에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두 번째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고 '효'를 노래하는 이 시대 명창 김영임이 부산시민과 만난다.

공연시작 전 공연장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웰빙콘서트는 매 공연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의 명소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Lawn-해운대 위에 잔디(이승곡 曲)'로 막이 오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6년 위촉곡인 창작관현악 'Lawn-해운대 위에 잔디'는 한 밤중 해운대 모래사장에 앉아 자신의 삶과 가족, 미래를 고민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국악음반으로는 최초로 100만장 이상 판매기록을 세웠던 '회심곡'의 주인공 김영임은 이번 무대에서 그의 대표곡 '회심곡'을 비롯 한오백년,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등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경쾌한 경기민요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회심곡'은 서산대사가 지었다는 불가의 하나로, 석가여래의 공덕으로 착한 사람은 극락세계로,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모진 형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불교의 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쉬운 사설로 되어 있다.

1975년 당대 경기도 소리의 명창 이창배의 문하에 입문, 소리공부를 시작한 김영임은 21살 젊은 나이에 음반 '회심곡(回心曲)'을 출반하면서 일약 최고의 소리꾼으로 떠올랐다. 우리가락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박호성

로 민요의 대중화에도 앞장서온 김영임은 1994년부터 매년 '김영임의 효 대공연'을 통해 세상사 사설과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회심곡의 절절한 노랫말과 35년 소리인생이 담긴 노래가락으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김영임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우리소리의 흥과 멋을 선보여 뜨거운 호평과 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동안 KBS 국악대상, 한국방송대상 국악인상, 문화의 날 국민화관훈장 수훈 및 대통령상, 제 6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대상 등 다수 상을 수상한 김영임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 보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시립합창단 중창단이 스웨덴 출신의 장애인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가 한국말로 불러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가수 이문세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불러 인기를 얻은 '나는 행복한 사람' 등 행복 메시지가 담긴 두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일보 여성노래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김운의 노래지도로 관객과 함께하는 신나는 노래교실도 함께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모듬북 협주곡 打(이경섭 曲)'으로 장식한다.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모듬곡 협주곡 打'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신문범, 최오성이 모듬북 협연을 맡아 공연장을 찾은 여성 관객들에게 일상의 고민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신명나는 소리판을 열어준다.



- 입장료 :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30% 할인해 드립니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1회 정기연주회

#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6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성기선



최나경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음악인들과 함께 6월의 싱그러움을 담은 제 431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한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거장 성기선과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성기선은 서울예고와 서울음대를 졸업 후 도미, 줄리아드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커티스 음대 지휘과를 졸업하였다. 1991년 최연소 참가자로서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 청년 지휘자 콩쿠르에서 입상해 리스본에서 네 차례의 연주회를 가진 성기선은 그동안 Washington National Symphony, Nova Filharmonia Portuguesa, Lisbon Metropolitan Orchestra, Curtis Orchestra 등 주요 교향악단을 객원지휘하였다. 2005 교향악축제의 폐막연주에서 KBS교향악단을 지휘하여 성공적인 연주회를 이끈 성기선은 2007 교향악축제에서는 프라임필하모닉을 지휘하여 호연을 이끌어내었다는 평을 받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는 2005년 난곡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와 러시아의 대가 페투호프의 피아노 협연으로 첫 만남을 가진 바 있다.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최나경은 지난해 미국 신시내티 교향악단의 부수석 주자 오디션에서 187명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해 미국 메이저 교향악단에 입단한 관악계의 첫 한국인 플루티스트로 화제를 모았다. 미국의 음악잡지 '심포니'에서 선정한 2006년 떠오르는 연주자로 선정되기도 한 최나경은 일찍이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로부터 '건강한 소리를 가진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최나경은 2002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협연자 콩쿠르, 2004년 아마하 영 아티스트 콩쿠르, 2005년에는 줄리아드에서 주최한 협연자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학교 100주년 기념 시즌의 오프닝 콘서트에서 줄리아드 심포니와 협연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는 시벨리우스 서거 50주년을 기념해 시벨리우스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교향곡 2번,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작품 283, 흠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서곡을 들려준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6회 정기연주회

#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07'

7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음악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는 7월 5일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07'를 마련한다.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환경, 생태, 오염 등을 주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여 상생하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강하게 전달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한 서정성이 넘치는 창작국악관현악곡들을 선정하여 연주한다. 특히 이번에 연주되는 이준호 곡 창작관현악 '산야(山野)', 25현 가야금협주곡 '바람강' 등 연주곡 대부분이 부산 초연곡으로 국악애호가들에게는 다양한 창작국악곡들을 만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첫 무대를 여는 창작관현악 '산야(山野)'는 KBS국악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있는 작곡가 이준호의 관현악 작품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이명일이 협연하는 25현 가야금협주곡 '바람강'은 우리 가곡과 Jazz적인 요소를 혼합해 다른 음색을 활용한 음악이다.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협연자 이명일은 부산 가야금연주단 부단장으로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유은선 곡 창작관현악 '창구만들기(바람, 빛)'는 관악기의 소리를 하늘에 이는 바람으로, 가야금을 비롯한 현악기의 발현음은 땅을 딛는 발자국 소리로 표현하여,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풀어낸 곡이다.

2부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의 노래와 국악관현악으로 시작한다. 배창희 곡 '그 땅, 그 하늘'을 비롯 김선이 편곡한 '아리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부산에서 초연한다. 판소리 '흥부가'와 판소리 '수궁가' 완창무대를 가진 바 있는 협연자 박성희는 2005년 'East Asia Music Festival' 1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완산국악제전 판소리 명창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정선희는 지방무형문화재 제2호 정정렬제 춘향가 전수장학 조교로 정정렬제 판소리 춘향가를 전승하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이견용 곡 창작관현악 '산곡(山曲)'으로 장식한다. 이 곡은 작곡가가 우리 강산 겹겹이 굽이치는 산의 곡선을 바라보며 작곡한 곡이다. 굽이 굽이 아름다운 산의 굽이가 우리의 감수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믿고 있는 작곡가 이견용은 깊이, 높낮이, 농담, 기울기, 비례, 불에 대한 여러가지 단상을 '山曲'에 담아냈다.



박호성



이명일



박성희



정선희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정기회원은 회원카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제 56회 정기공연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

5월31일-6월1일 목-금요일  
오후 7:3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무용단이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제 56회 정기공연.

영화, 연극, 뮤지컬로 각색되어 많이 알려진 '맹진사댁 경사'를 춤극으로 새롭게 재구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답고 멋드러진 춤극을 선보인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 원작/오영진 · 각색/하현관
- 연출/오정국

주역

이정인(이쁜이), 김기원(미연), 정진희(갑분이), 박창희(이쁜이), 최의욱(미연), 권봉정(수석, 갑분이), 장래훈(수석, 미연 숙부), 김병주(부수석, 맹노인), 이정식(맹진사), 오숙례(맹진사 부인), 이창규(삼들이) 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청소년, 일반인을 위한  
박현주 Wings Dance  
Company 발레공연

2일 토요일 오후 6:00

세계 댄스 스포츠 국제 심사위원, 부산 북구 낙동청소년무용단 훈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주 Wings Dance Company 발레 공연.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클래식 발레의 전통적인 느낌, 현대적인 창작 발레의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아라리오, 파퀴타, 집사의 여행

- 연출, 안무/박현주
- 총지휘/양정옥
- 무대감독/허윤석

출연

박현주, 조형창, 김희진, 최은정, 김미경, 최민영, 박지혜, 김경란, 김현승, 이채린 외 북구 낙동 청소년무용단 19명

**입장료** 일반 12,000원 · 청소년 8,000원

**문의** 박현주(863-3433, 017-552-9605)

부산장로성가단 창단 20주년 기념  
제 12회 정기연주회

4일 월요일 오후 7:30



1986년 11월에 창단, 창단 20주년을 맞은 부산장로성가단(단장/이경석)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하는 제12회 정기연주회.

중후한 남성합창단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장로성가단은 이번 연주회에서 수영로교회 오케스트라와 함께 정통성가와 현대 성가를 연주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글로리아

하이든/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 '하늘은 말하네 주의 영광'

베토벤/감람산의 그리스도 중 'Alleluja'

- 지휘/김일연, 김정일(객원)
- 특별출연/안민, 정진희, 허미경

**입장료** 초대

**문의** 권오중(011-864-4867)

사랑의 부부합창단 창단 20  
주년 기념 연합합창제

5일 화요일 오후 7:30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합창으로 기쁨을 나누고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1987년 대구에서 처음 창단 된 사랑의 부부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 연합합창제.

1993년 대구, 서울, 대전, 원주 등 4개 도시의 사랑의 부부합창단이 모여 연합회를 결성한 이후 현재 전국 13개 지역 합창단이 연합회에 가입했으며, 캐나다 애드몬톤에서도 사랑의 부부합창단이 창단 되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국 12개 지역의 사랑의 부부합창단이 출연하여 수준높은 합창음악을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문의** 김영인(017-557-543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  
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김영임이 만나는  
11시 해피콘서트

8일 금요일 오전 11:00



박호성

김영임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여성 청중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의욕적으로 준비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박호성과 김영임이 만나는 11시 해피콘서트'.

파워와 역동성으로 우리 음악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지휘자 박호성과 세상살이를 가슴으로 노래하는 명창 김영임의 소리와 효를 이야기 하는 회심곡,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하나되는 신나는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연다.

프로그램

이승곤/창작관현악 '해운대 위에 잔디'  
(2006년 위촉곡)

백규진(편곡)/국악관현악으로 듣는 행복의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박춘석(편곡)/관객과 함께 부르는 대중가요 '나는 행복한 사람'

김영임의 소리와 국악관현악/한오백년,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김영임의 호 이야기/화심곡

이경섭/행복한 세상을 위한 모듬북 협주곡 'ㄷ'

· 지휘/박호성

· 창, 화심곡/김영임

· 노래지도/김운

· 모듬북/신문범, 최오성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코리아 쇼페라단 창단 공연

## 2007 쇼페라-베르디의 남자 푸치니의 여자

9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배수진

김도형

윤성호

다양한 음악장르를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코리아 쇼페라 창단 기념 공연 '베르디의 남자 푸치니의 여자'.

쇼페라 '베르디의 남자 푸치니의 여자'는 고전오페라 스토리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추어 베르디, 푸치니 두명의 거장을 코믹하게

각색, 두 거장의 성격, 작품을 다루어보는 이색 무대이다.

**프로그램**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몸쓸 악당 놈의 가신들' 오페라 '오델로' 중 '이야고의 신조' 오페라 '라보엠' 중 '무젯타의 왈츠' '내 이름은 미미' '미미는 돌아오지 않고' '오 사랑스런 아가씨', 오페라 '돈 카를로' 중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등 수곡

· 단장, 예술총감독/배수진

· 연출/방정욱 · 지휘/손경균

· 대본/박재영

· 오케스트라/영남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맥오페라단합창단, 삼순중창단

· 특별출연/KBS 개그맨 윤성호, 일렉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 비보이팀 나타라자 클루

**출연**

김도형, 김은란, 오세민, 이윤정, 변향숙, 조지현, 이현주, 윤장미, 황성학, 김정균, 김화정, 최판수, 고정현, 강희영, 박은미, 옥해나, 김경, 전병호, 윤석, 안영중

**입장료** VIP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10,000원

**문의** 맥오페라단(501-3999)

## 수영민속보존회 문화학교 제 2회 정기발표회

13일 수요일 오후 7:30

수영민속보존회 문화학교에서 우리 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문화학교 학생들의 정기 발표무대. 수영민속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는 수영아류와 수영농청놀이 예능보유자들과 함께 우리 문화 한마당을 펼친다.



**프로그램**

산조춤, 폴노래 모찌기소리,

살풀이춤(중급반), 영남농악, 태평무, 풍물판굿

입춤, 살풀이춤(연구반), 삼도설장구, 민요춤

말뚝이춤과 사자춤, 한량무

· 안무 및 지도/김혜경

· 풍물지도/배현열

· 특별출연/서옥연(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 제2호 수영농청놀이 예능보유자)외 6명, 중요무형문화재 43호 수영아류 회원

**입장료** 초대

**문의** 수영민속보존회(752-2947)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31회 정기연주회

## 젊은 거장들을 만나다

14일 목요일 오후 7:30



성기선

최나경

'정확한 리듬감과 감수성이 풍부한 인상적인 지휘'를 펼치고 있는 지휘자 성기선과

**YAMAHA**

감동울 · 함께 · 만드는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시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1회 정기연주회.

플루티스트 최나경은 지난해 미국 신시내티 교향악단의 부수석 주자 오디션에서 187명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해 미국 메이저 교향악단에 입단한 관악계의 첫 한국인 플루티스트로 화제를 모았다.

프로그램

- 훌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서곡
- 라이네케/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작품 283
- 시벨리우스/교향곡 제2번 라장조 작품 43
- 지휘/성기선(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협연/최나경(미국 신시내티 심포니 부수석)
- 해설/곽근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제 3회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18일 월요일 오후 7:30



'사랑의 선을로 어린 생명을 구한다'는 취지로 지해 창단된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의 제 3회 정기연주회.

이동신 프로그램

비제/아를의 여인 모음곡 제2번 중 뿔랑/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라 단조 작품 61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 마스카니/오렌지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등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협연/최양욱, 이윤수, 신상준, 부산연합합창단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정희자(011-589-3111)

**닥터스빅밴드**  
**제 6회 정기연주회**  
22일 금요일 오후 7:00



1999년 부산, 경남 지역의 의사 20여명과 음악 전공자 10여명으로 창단,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닥터스빅밴드 정기연주회.

2002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닥터스빅밴드는 색소폰, 트럼본, 트럼펫, 기타, 드럼 및 타악기로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한다.

프로그램

- California Dreamin, Take Five, Hey Jude, A Salute To Glenn Miller II, Lassus Trombone, Sing Sing Sing, Twilight Zone, GranadaBrazil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닥터스빅밴드(550-9330)

**제 23회 CBS 성가합창제**  
23일 토요일 오후 7:30

성가의 보급을 위해 CBS기독교부산방송이 매년 마련하고 있는 CBS성가합창제.

프로그램

모차르트/대관식미사 다장조 K. 317 '글로리아'

박지훈/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효원/기쁘게 할렐루야 등 수곡

참가단체

- 수영로교회성가대, 안락교회성가대, 장전중앙교회성가대, 남부민 중앙교회성가대, 부산성일교회성가대, 하나인교회성가대, 기도온콰이어, CBS여성성가대

**입장료** 초대

**문의** CBS기독교부산방송(636-0050)

**2007 피아니스트**  
**진보라 재즈 콘서트**  
24일 일요일 오후 6:00

19세의 나이에 보스턴 버클리 음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9월 유학을 앞두고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단독 콘서트.

2002년 9월 만 14세에 서울 재즈 아카데미 재즈 피아노과를 졸업한 후 재즈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진보라는 2002년

한전 아츠 풀 연주를 시작으로 광주 국제영화제,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예술의전당 등 크고 작은 재즈 무대와 TV 방송 및 주요 지면을 통해 그 실력을 선보이고 있는 당찬 십대 재즈 연주자이다.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도토리엔터테인먼트  
(010-4820-6623)

**기드온 콰이어**  
**제 11회 정기연주회**  
7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남성만의 깊고 부드럽고 강렬한 톤의 음악을 들려주는 기드온 콰이어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나같은 죄인 위하여, 주 예수 내맘에, 새벽을 깨우리라 등

· 지휘/연명희

**입장료** 균일 30,000원(초대)

**문의** 연명희(011-867-6529)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6회 정기연주회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 생태음악회 '장생 2007'**  
7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07'

환경, 생태, 오염 등을 주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여 상생하는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강하게 전달하는 이번 음악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한 서정성이 넘치는 창작곡과 관현악곡들을 선정하여 연주한다.

프로그램

이준호/창작관현악 '산야(山野)' (부산초연)  
이준호/25현 가야금협주곡 '바람강' (부산초연)

유은선/창작관현악 창구만들기(바람, 빛)(부산초연)

노래와 관현악/그 땅, 그 하늘(배창희 곡), 아리요(정진수 곡),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김선 편곡)(부산초연)

이건용/창작관현악 '산곡'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 협연/이명일(가야금), 박성희, 정선희(노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라단조 작품 40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동그라미 노래모임 제 13회 정기콘서트

3일 일요일 오후 4:00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 20여명 으로 구성된 동그라미 노래모임의 제 13회 정기콘서트. 1989년 발매한 동그라미의 앨범에 수록된 곡과 대학가요제 곡들을 중심으로 정기콘서트를 갖는다.

**입장료** 무료

**문의** 이진규(018-570-1141)

제 3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4일 월요일 오후 7:30

200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3번째 정기연주회.

최낙주(플루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박지연(오보에, 울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최영희(혼,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 여



대현(바순, 부산심포니밴드 단원), 원준연(클라리넷,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리더)으로 구성된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은 글로벌아트홀 개관기념음악회, 금정수요음악회, 가톨릭센터 개관기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에서 초청연주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서곡 '마술피리'

포레/파반느

홀델/아다지오와 변주곡

뽀랑/피아노와 목관5중주를 위한 6중주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원준연(019-660-3919)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창작 작품발표회

5일 화요일 오후 7:00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에 재학중인 무용학도들의 무대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재즈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무용을 선보인다.

작품

창작무용 '별, 또 하나의 우주' (안무/김성미 · 출연/김지혜, 김수련, 김진영, 김혜진, 성민영, 이은주, 천근혜, 김효언 외)

재즈댄스 '낮은 오르골의 비밀' (안무/공동안무 · 출연/김혜진, 김진영, 김수련, 김

중극장

양옥진, 정성흡 듀오 리사이틀

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양옥진과 피아니스트 정성흡이 들려주는 듀오리사이틀.

프로그램

드뷔시/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베토벤/첼로 소나타 2번 사단조 작품 5-2

쇼스타코비치/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 (대표)  
245-2714 (공영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탈아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영에 매져**

평도원타자, 경주월드 평민리미월드 연동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는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대!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효언, 김남희, 김미정, 박은미, 장수진)  
재즈댄스 '기다림 그리고 환희' (안무/공동안무 · 출연/이은주, 김지혜, 성민영, 천근혜, 김채은, 양영미, 최자민)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무용과 (850-3060)

제 7회 김정희 피아노 아카데미 연주회  
**6월의 향기-4대의 피아노를 위한 피아노콰르텟 콘서트**  
6일 **수요일** 오후 5:30



신라대학교 음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주회를 비롯 예음회, 부산 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부산 관현악단, 노보시 비르스크 오페라

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정희와 제자들이 함께 들려주는 무대.

**프로그램**

바흐/시실리아느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인형 모음곡 중 'March'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K 550  
얏은반 사물놀이/웃다리 풍물가락 등 수곡 연주

김정희, 백지용, 장묘희, 차혜자, 서민경, 오새별, 강민정, 이연재, 황영수, 손민경, 박세진, 김소연, 조유리, 권지현, 황영인 외

**입장료** 초대

**문의** 김정희(628-4206, 017-552-4106)

**신정운 피아노 독주회**

7일 **목요일** 오후 7:30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과정 이수 중 독일, 독일 하이델베르크 만하임 국립음대에 최연소 입학하여 화제를 모은 신정운 피아노 독주회.

국내에서 한국일보 콩쿠르 1위,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1위, 음악춘추 콩쿠르과 틴에이저 콩쿠르에서 각각 3위를 하는 등 유수



의 콩쿠르에 참가하여 그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정운은 이탈리아 세니갈리아 국제콩쿠르 5위, 로마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스페인 앙도라 피아노 콩쿠르 2위, 오스트리아 브람스 콩쿠르 디플롬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프로그램**

바흐-부조니/Orgel-Choralvorspiele fur Klavier

리스트/파가니니에 의한 대 연습곡 1-6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코리아트 EN(621-3882, 010-6665-3880)

**포크, 블루스의 거장 이정선 콘서트**

8일 **금요일** 오후 7:30



한국 가요계에 큰 획을 그었던 포크, 블루스의 거장 이정선의 부산콘서트.

새로운 앨범 Handmade(11집)로 10년만에 부산을 찾은 이정선은 '살다보면 언젠가는'을 비롯해 '항구의 밤' '상실' 등의 신곡들을 부산 팬들에게 선보인다. 이정선은 '섬소년' '산사람'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외로운 사람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 특별출연/정시용

· 연주/장재환, 이경남, 김경인, 이상유, 이민영, 박현주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램미디어(1588-2528, 011-884-5540)

**부산챔버뮤직소사어티 (BCMS) 창단연주회**

10일 **일요일** 오후 6:00



부산의 실내악 문화를 주도하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김동욱(바이올린), 이은옥(바이올린), 김가영(비올라), 양욱진(첼로), 정성흠(피아노) 등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부산챔버뮤직소사어티 창단 연주회.

부산챔버뮤직소사어티는 앞으로 오케스트라 합주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각자의 개성과 수준 높은 하모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3중주, 브람스 피아노 5중주,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3중주 등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실내악 명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제 1번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제 2번 마단조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011-597-6808)

**김희정 바이올린 귀국 독주회**

12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로버츠 슈만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에센 플크방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김희정의

바이올린 독주회.

독일 유학전 연세신포니에타 단원으로 활동한 김희정은 풍부한 음악성과 관객을 사로잡는 대범한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희정은 독일 유학중 Deutschr Bach Solisten 객원 단원으로 활동하며 12회의 독일 순회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가지기도 했다.

**프로그램**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사장조 작품 13  
라벨/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프랑크/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 피아노/이주엽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소프라노 김선미 독창회**

14일 목요일 오후 7:30



동의대학교 음악 학과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쳐온 김선미의

독창회.

**프로그램**

도니제티/사랑과 죽음, 뱃사공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미미의 작별인사'  
신귀복/얼굴  
임권수/강 건너 봄 오듯  
베르디/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중 '고맙습니다, 여러분'

**입장료** 초대

**문의** 프리모아트매니저(622-5529, 016-861-6105)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6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5일 금요일 오후 7:30



기량이 뛰어난 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 중 자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 솔로리스트들이 청소년교향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생상/첼로 협주곡 제1번 중 제3악장  
랄로/스페인 교향곡 중 제5악장  
모차르트/오보에 협주곡 중 제1악장  
월튼/비올라 협주곡 중 제2악장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중 제3악장  
보케리니/첼로 협주곡 중 제1악장 등 수곡  
· 지휘/이동신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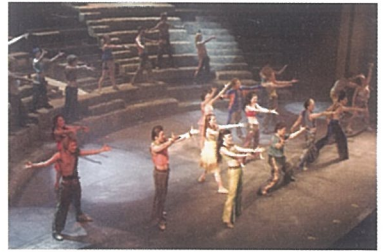
김민아(첼로), 이윤지(바이올린), 이승희(오보에), 김주희(비올라), 채지원(바이올린) 임수미(첼로), 이혜리(바이올린), 김영민(호른)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8)

**M&V(Mission & Vision)뮤지컬컴퍼니  
1907 평양대부흥 100주년 전교뮤지컬  
뮤지컬 가스펠**

16일-19일 토-일요일 오후 7:30



M&V(Mission & Vision)뮤지컬컴퍼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뮤지컬 '가스펠'.

신약성서 중 마태복음 43구절을 인용하여 극화한 뮤지컬 '가스펠'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결코 종교적이거나 심각하지 않아 누구나 함께 공감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창력과 연기력이 뛰어난 성악가들과 특별오디션으로 선발된 신진 뮤지컬가수들이 대거 출연, 예수의 인간적인 고뇌를 그린다.

- 총감독/손욱(아지무스오페라단 단장)
- 연출, 지휘/김영석(미국 맨스필드대학교 뮤지컬과 교수)
- 음악감독/유형민(광주대학교 겸임교수)
- 무대감독/김보영

**출연**

우경준, 김추리, 구원모, 김성엽(이상 스테판), 배지혜, 정수연(이상 소니아), 최유진, 허신애(이상 로빈), 신린, 류고운(이상 조앤), 고예진, 김민지(이상 라마), 김태형, 문태은, 최성준(이상 유다), 구원모, 박상문, 김동훈(이상 제프리), 정정아, 김신영(이상 허브), 이용란, 이성희(이상 페기), 김혜성(길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011-9520-4649)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함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 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돈가스 ₩6,000원 (디지털 포함)
- ★3단샌드위치+원두커피 ₩6,0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부산·  
경남 제 6회 정기연주회**  
22일 금요일 오후 7:30



순수 아마추어 음악동호회로 음악사랑을 실천해온 베누스토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로 있는 손명균이 지휘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헨델/울게 하소서 등 수곡

- 지휘/손명균(베누스토 오케스트라 부산·경남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 소프라노/배수진(뮤직 아카데미 음악감독)
- 테너/전병호

**입장료** 초대

**문의** 장호강(011-862-2400)

소극장

**부산시립극단 제29회 정기  
공연 '칼맨'**

5월 29일-6월 2일 화-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몰리에르의 '수전노'로 부산국제연극제 무대에 선 부산시립극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제 29회 정기공연작품 '칼맨'.

칼을 소재로 한 '칼맨'은 해방이후 월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는 우두철과 자폐증을 앓는 그의 딸 영애, 그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 병태와 춘삼, 도미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 김태수 특유의 재치로 경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전국연극제에서 두 차례 대상을 수상한 연출가 광종필이 객원 연출을 맡았다.

- 작/김태수
- 연출/광종필
- 특별출연/손상우 외 5명 (B.B.D) B-boy 댄스그룹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정원상 작곡

**UN전물장병 추모음악회**

21일 목요일 오후 7:30



작곡 모임 향천회, 한국작곡가협회 부산지부를 창단하는 등 부산 창작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작곡가 정원상이 들려주는 UN전물장병

추모음악회.

2004년 '부산 연가의 밤'을 발표하며 부산의 명승지 10곳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정원상은 2005년 UN 기념공연 내 영곡군 '헤론'의 부부합창 기사를 보고 추모 음악을 작곡해왔다.

**프로그램**

UN묘지(양원식 詩), 꽃노을 지는 UN묘지(박옥위 詩),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님(박희영 詩), UN공원 추모 노래(이해인 詩), 님의 노래(채한수 詩), 거룩한 낮 받는 UN묘지(박달수 詩), 자유를 지킨 UN묘지(정선기 詩), 평화의 성터 UN묘지(김광자 詩)

**연주**

소프라노 신정순, 메조 소프라노 조현주, 테너 한남식, 테너 김진영, 바리톤 고훈수, 바이올린 정혜영, Holy 중창단, 서속지(피아노), 서양지(피아노)

**입장료** 초대

**문의** 백승태(018-244-1723)

피아니스트 정수연클래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음악회**

24일 일요일 오후 5:00

서울예고와 연세대학교,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미카고 반주자로 활동한 바 있는 정수연과 그의 제자 최누리, 함주연, 채희정, 김예담 등이 함께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수준 어쿠스틱연주, 녹음홀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벌아트홀

레코딩스튜디오 • 글로벌콘서바토리카운슬링실 • 녹음홀 • 음반연습실 • 세미나



**GloVil** 문화예술원  
Culture & Art Center

051-505-5995 glovil.org / glovil@paran.com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 지하철3호선 미남역 1번출구 5분거리



## 부산문화회관

# 6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 6월 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 동요메들리(김태호편곡)/하늘나라동화, 아기다람쥐 또미, 수건돌리기, 별 내리는 들길에서, 아기염소, 화가, 종이접기, 네잎클로버
- 외국민요/에델바이스(스위스), 귀여운 꼬마(미국), 라쿠카차차(멕시코), 아가씨들아(폴란드), 숲속의 뚝배기(독일)
- 만화영화 주제가/마징가 Z(최석태 편곡), 등장미 소녀 캔디, 개구리소년 왕눈이
- 즐거운 명곡/트리쉬 트라츠플카, 크시코스의 우편마차

※출연 : 소프라노 I / 최난영, 홍승현, 이정희, 김지현, 양은제  
소프라노 II / 전귀만, 기미현, 이정란, 김윤희, 안소영, 유수정  
알토/박성혜, 김미경, 정은영, 신소운, 장은경, 배소영  
테너/조성기, 권정은, 최춘식, 김용태  
베이스/박원한, 한동훈, 이정철, 서관수  
피아노/이승윤

※해설 및 지휘/박광하(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 ● 6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오고무(춤/이창규, 허태성, 류권홍, 최의옥, 김윤호 · 상쇠/김미란 · 장고/장래훈 · 북/김기원 · 징/강모세)
- 성주허튼춤(춤/김주령)
- 장고춤(춤/윤은하)
- 태평무(춤/김동숙)
- 부채춤(솔로/김주령 · 군무/정수민, 박창희, 오수여, 김미란, 김경미, 안주희)
- 허튼북춤(춤/이성원(수석), 이정식(부수석), 김병주, 김기원, 강모세  
※태평소/이창규 · 상쇠/장래훈(수석) · 장고/김윤호 · 북/허태성 · 징/류권홍

※안 무/홍기태

### ● 6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수제천(집박/유경조 · 소금/최재호 · 대금/강영진, 이만형, 강은주 · 피리/ 최성교, 강영현, 정주아 · 해금/성기만, 최윤정, 윤해승 · 아쟁/최영훈 · 장 구/이장우 · 좌고/송강수)
- 피리독주 '경풍년'(피리/진형준)
- 설장구가락(설장구/전학수, 신문범, 이주현, 최오성)
- 대풍류(대금/한영길 · 피리/권미정, 박순자 · 해금/방병원 · 장구/신문범 · 좌고/최오성)
- 산조합주(대금/한영길,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권혜정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강상호, 장구/신문범)

※지휘/ 박호성

※해설/백규진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음악
- 연극
- 무용
- 아동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늘원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극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 음악

### 글로벌콰이어와 함께하는 여성을 위한 행복한 음악회

1일 금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저녁시간대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아트홀에서 마련한 브런치 콘서트.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 5일 그랜드테너 이은민 독창회



은민 독창회.

슈만의 대표곡 '시인의 사랑' 전곡을 비롯 슈만과 슈베르트의 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정희경

#### ■ 콘서트콰이어와 함께하는 송필석 음악여행 '첼로가 그리는 저녁풍경'



려주는 작곡발표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장, 칸타빌레 남성양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테너 이

한국적 정서를 감미롭고 애절한 선율로 그려온 작곡가 송필석이 지난 2002년 이후 발표한 합창곡과 가곡 등 최근 창작곡을 중심으로 들

송필석은 현재 작곡모임 '임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합창/여호와, 사랑의 코스모스

가곡/눈부신 하늘, 하늘을 보며, 구름, 당신을 보내고

첼로연주곡/첼로가 그리는 저녁풍경, 바람의 길 등 수곡

- 합창/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 솔로/테너 구덕해, 최춘식, 바리톤 서관수, 소프라노 김나영
- 첼로/김판수

#### ■ 19일 장원상 교수 클래스 콘서트

경성대학교 장원상 교수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 출연/이기윤, 권은경, 서용재, 문희범, 전주영, 정술지, 오현주, 김현정, 강은태

#### ■ 26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윤영 초청 독주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윤영 독주회.

#### 프로그램

브람스/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

크라이슬러/서주와 알레그로

사라사테/피고이네르바이젠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 해금 5중주 천궁 창단연주회

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해금주자 김소현, 박미경, 백민경, 유영호, 이인경으로 결성된 해금5중주 천궁의 창단 연주회.

'하늘의 활' 이란 뜻을 지닌 천궁은 이번 무대에서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연주를

통해 해금연주의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전통음악/도드리

이병욱/해금창작곡 '얼'

이은경/아리아(초연)

입장료 초대

문의 이인경(011-9932-6910)

### 김민정 클래식 피아노 연주회

9일 토요일 오후 4:30

글로벌아트홀



피아니스트 김민정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식 연주회.

프로그램

리스트/마제타

베토벤/발트슈타인

쇼팽/혁명 등 수곡

입장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 제 12회 정기연주회

10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996년 엘랑 클라리넷 4중주단으로 창단, 2001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 클라리넷 콰르텟의 12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편곡/김태훈)/소나타 K.545

알베니스(편곡/케라벨)/세빌리아

피아졸라/오블리비언(망각) 등 수곡

·출연/김태훈, 최지혜, 김성현, 가시구치 요시오

·특별출연/윤태준(바순), 손영진(트럼펫)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태훈(017-543-0883)

### 원영아 피아노 리사이틀

1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경원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트로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독주회와 슈투트가르트 챔버오케스트라, 국립 슬로바키아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무대,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원영아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뒤포르 미뉴엣에 의한 9개의 변주곡 Kv. 573

리면상/내 고향의 정든 집  
쇼팽/소나타 제 3번 나단조 작품 58 등  
·타악기/김정우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공연기획(626-6664)

### 락음국악단 정기연주회

즐거운 소리, Happy Music

12일 화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크라운, 해태제과의 후원으로 결성된 최초의 민간국악단인 락음국악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김성기/락음서곡

영화주제곡 모음/가브리엘의 테마, 사랑은 비를 타고

이상규/단소 수상곡

박범훈(편곡)/경기민요 '창과 관현악' 등

·협연/박용호(단소), 최정아, 김보연(경기민요), 부산 KBS어린이합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락음국악단(02-766-5111)

### 6월의 소나기

1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한국종합예술학교 임종환교수와 강희숙, 공란영, 신수진, 이지연, 최호준이 들려주는 리코더 앙상블의 밤.

## 부산유일의 심야꽃집

## 24시 꽃백화점

(전국꽃배달서비스)

소중한 내마음을 24시간 배달해 드립니다.

고급장미 · 슈퍼장미 / 100송이꽃 포장전문점 / 경조화환 · 꽃바구니 등,서양란 · 관엽

\* 대연동 유엔로타리 문화회관 박물관 맞은편

TEL : 051-625-1665 / 무료전화 : 080-240-7979

FAX : 051-625-1664 / H · P : 010-6676-1665

· 부산은행 : 036-12-110559-3 · 예금주: 강자인

· 농협 : 943-02-225001 · 예금주: 강자인



##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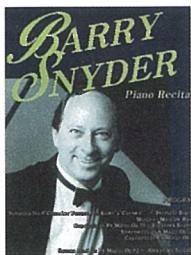
헨델과 텔레만, 비발디의 바로크 리코더 소나타와 콘체르토, 바흐의 Air,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부산리코더앙상블

**입장료** 초대  
**문의** 강희숙(016-562-6561)

##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베리 스나이더 피아노 리사이틀

1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교육자인 피아니스트 베리 스나이더 초청연주회.

1970년부터 미국 이스트만음대 교수로 있는 베리 스나이더는 40여년간 세계 각국에서 독주회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부조니/카르멘 환상곡에 의한 소나티나 라벨/가을

브람스/인터메초 등 수곡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6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13일 차세대 비르투오조의 향연-비상 I  
플루트를 전공하는 차세대 연주자들의 무대.  
· 출연/이호권, 김예나, 이인애(부산예고 1년), 신승민, 손원주(부산예고 2년), 이나라, 최화정(부산예고 3년)  
· 피아노/김나영 · 해설/박진홍

## ■ 20일 아리아에서 뮤지컬까지



이윤정 성미진

소프라노 이윤정, 이영화,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정거화, 박찬, 베이스 권영기가 들려주는 6월의 세레나데.  
국내외의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영화 주제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차미소란 · 해설/정거화

## ■ 27일 오카리나와 동요의 만남

· 출연/최양자(오카리나), 교사오카리나합주단 바운스앙상블, 강은유(고정초등 5년), 이시윤(분포초등 5년), 김남은(해강초등 6년), 박선영(동래초등 4년), 공정빈(부산예중 1년)

· 해설/윤성원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박진홍(017-563-7966)

## 앙상블 클라시카 II시 브런치 콘서트

14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저녁시간대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앙상블 클라시카가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브런치 콘서트.

**프로그램**

베버/클라리넷을 위한 서주, 주제와 변주곡 바흐/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비틀즈/A Hard Day's Night, Help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앙상블 클라시카(506-6305)

어린이를 위한 라이브 클래식음악회

## 브레멘 동물음악대

6월 19일(화)-6월 28일(목),  
7월 3일(화)-7월 8일(일) 평일  
오전 10:00, 11:00, 주말 오후  
2:00, 4:00(월요일, 6/23일~6/24일 공연  
없음) 가람아트홀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00,  
11:00, 6월 30일-7월 1일 토-일  
요일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독일작가 그림형제의 동화를 소재로, 극중 동물들을 표현한 라이브연주와 동화연구가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음악회.

· 예술감독/황진웅  
· 작, 연출/김만중 · 음악감독/백천주  
· 연주/박미은, 원영아, 김선아(피아노), 손경균(클라리넷), 김정우(타악기), 이재성(첼로), 구원모(성악)

· 동화공연/양윤주, 손보향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공연기획(626-6664)

## 2007 에타래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느끼기

에탈계락(藝脫界樂)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우리음악에 뿌리를 두고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 퓨전시나위 에타래의 2007년 정기무대.

에타래는 1998년 창단 이후 이탈리아

5개도시 순회연주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통영국제음악제 갈라콘서트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조익래/에탈계락(藝脫界樂)  
정세윤/개구리  
하순봉/엔터테인먼트 II  
류성식(재보)/시선뱃노래 등

- 단원/허인대, 조익래, 정세운, 이갑석, 류성식, 최지환
- 객원/박은정(가야금)

**입장료** 초대

**문의** 최지환(011-594-9124)

### 6월 민주항쟁, 부산예술기획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 **6월의 함성**

21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정성희, 테너 윤정윤, 바리톤 강재석, 파고티스트 정다정과 뉴 프라임 오케스트라가 우리 귀에 익은 가곡과 칸초네,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5,000원

**문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 엄마랑 아가랑 함께 즐기는 **행복한 음악회**

22일 금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재미있는 요들송과 신기한 악기연주로 들려주는 엄마와 아기를 위한 행복한 음악회.

**입장료** 엄마랑 아가랑 10,000원

엄마 7,000원 · 아기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이임수 클라리넷 독주회

23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소리와 테크닉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클라리네티스트 이임수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대학원을 졸업

하고 동덕여대 교수로 있는 이임수는 현재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단원으로도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프로그램

슈만/환상소곡 작품 73

글린카/피아노와 바순, 클라리넷을 위한 3중주 '비창'

오스본/클라리넷 솔로를 위한 랩소디

브람스/소나타 작품 120 제 2번

**문의** 박성호(011-747-8002)

### 봉생병원 인공신장실 개원 20주년 기념음악회

27일 수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봉생병원 인공신장실 개원 20주년을 맞아 투병중인 환자와 보호자를 초청해 마련하는 기념음악회.

· 출연/페스티보 윈드콰이어, 테너 박훈,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가수 헤은이

**입장료** 초대

**문의** 봉생병원 인공신장실(664-4231)

제 1074회 MBC 목요일음악회

### Sol(松) Trio 창단연주회

28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이진성 황지원 김민경

부산예고 동문인 피아니스트 이진성,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첼리스트 김민경으로 결성된 솔 트리오 창단연주회.

트리오 이름인 '솔'은 부산예고를 상징하는 예술의 '솔'과 음계의 'sol'을 의미한다.

#### 프로그램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다단조 작품 49  
피아졸라/피아노 트리오 '부에노스 아이레스향의 사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Aria's 페스티벌

28일-30일 목-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페라 아리아의 다양한 세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지역 성악가들을 비롯 성악을 전공하는 유망주들이 유명 오페라 아리아곡을 들려준다.

#### 출연

· 28일(학생)/송은지, 김라현, 정나빈, 이정현, 김가은, 김강호, 양서진, 서연주,



부산아쿠아리움 **핑크핀**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기간 : 4/1 ~ 6/30

생태계의 신비가 있는 봄의 축제~!  
수서생태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체험학습

온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의 신비!  
병아리 천마리와 함께하는  
봄 체험교실

제주도에 알뜰달콤~ 봄이 활짝~!  
바다 속으로 떠나는  
제주도 봄나들이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길경남, 조애리, 서유원

· 29일/소프라노 정명지,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임충진, 바리톤 고정현, 베이스 권영기

· 30일/소프라노 신정순,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테너 황성학, 바리톤 최기천, 베이스 정영욱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28일 공연 균일 5,000원)

**문의** 문대진(011-9526-8929)

## 금관악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동요세계

29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시민회관 대극장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금관5중주 스피릿브라스의 흥겨운 연주가 펼쳐지는 즐거운 클래식 무대.

**프로그램**

수자/워싱턴 포스트 마치

오펜바흐/오페레타 '천국과 지옥' 중 '캉캉' 앤더슨/나팔수의 후일 등 수곡

· 출연/신재성, 김성준, 양희정, 박은용, 정미경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 갈리나 베일 초청 기타 독주회

30일 토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초인적인 테크닉으로 청중들을 열광시키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영국 기타리스트 갈리나 베일 초청 독주회.

**프로그램**

세브첸코/카르파티안 랩소디

롤랑 디옹/리브라 소나티네 중 '푸오코'

브람스(편곡/갈리나 베일)/헝가리 무곡 5번

라흐마니노프(편곡/갈리나 베일)/전주곡 5번 작품 23 사단조 등 수곡

**입장료** 균일 25,000원

(5인 이상 단체예매시 2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연극

2007 가마골소극장 고정레퍼토리

### 서툰사람들

5월 11일(금)-6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필요하면 다 흠치는 겁 많은 도둑과 사랑에 서툰지만 용감한 집주인의 하룻밤 이야기 '서툰 사람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김지현, 한상민, 차민연, 이정욱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5월 22일(화)-6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놀이소극장

세탁을 풍자하는 탄탄한 스토리로 대학로 흥행돌풍을 일으킨 코미극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부산공연.

사람의 마음을 세탁하는 오아시스세탁소를 배경으로, 소시민의 삶을 웃음과 해학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김정숙 · 연출/권호성



· 출연/조준형, 문상희, 정종훈, 김현미, 이성호, 김지웅, 하유미, 송효주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원스테이지(1588-0881)

극단 자갈치 레퍼토리 선작공연 2

### 복지에서 정지로

5월 31일(목)-6월 9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30 소극장 신명천지



1987년 당시 세간을 놀라게 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배경으로, 인권유린의 현실을 고발한 마당극.

· 작/공동창작 · 연출/손재서

· 출연/김평삼, 전성호, 이상우, 최의덕, 류성호, 최연호, 이해영, 황지선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자갈치(515-7314)

## B-Boy KOREA

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떠오른 비보이와 국악을 접목시킨 색다른 무대.

전설의 비보이 블랙포인트와 야비한 수법으로 최고가 된 비보이 야비의 십년에 걸친 대결을 통해 춤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승부의 세계를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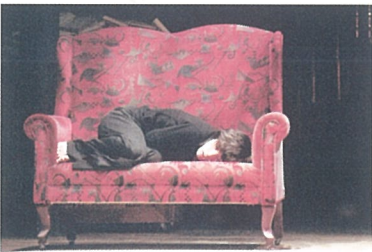
· 기획/송승환, 이광호  
· 연출/김병호 · 음악/이동준  
· 안무/팝핀현준  
· 출연/정지훈, 박재희, 손진영, 남동훈, 문복주, 김효중, 권성기, 강동일 외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25,000원  
A석(2층)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에 한해 30% 할인)

**문의** PMC 네트워크(1588-1795)

### 극단 차이 창단공연 **트라우마**

5일(화)-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체제의 거대한 힘 앞에 거세당한 부권을 상징하는 대마 중독자 아버지와 그 폭력의 희생양으로 외진 산장에 숨어 현실과 극단적으로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란성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를 통해 부조리한 삶의 비극성을 그린 작품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2003년 부산연극제에서 대상, 희곡상, 무대미술상, 무대기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작, 연출/구현철  
· 출연/최웅, 유재명, 양지웅, 이정비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예매/15,000원 · 12,000원,  
첫주 공연 30% 할인)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 뮤지컬 **헤드윅**

8일 **금요일** 오후 7:00, 10:00, 9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0일 일  
요일 오후 3:00, 6: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동독 출신 트랜스젠더 록가수의 아픈 과거가 노블로그와 노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전개되는 콘서트 형식의 색다른 뮤지컬.  
· 출연/김다현, 송웅진, 이석준, 전혜선, 이영미

**입장료** 균일 50,000원

**문의** 예명기획(804-0087)

사실적으로 간다 Part 1

### 내 마음의 **안나푸르나**

8일(금)-1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9일  
(화)-24일(일) 오후 7:30(일요일은  
오후 6:30) 가마골소극장

극단 간다의 '사실적으로 간다' 시리즈 첫 번째 무대.

3월 갑작스런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힌 가족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가족의 의미



를 되짚어보는 작품이다.

· 작/박춘근  
· 연출/민준호  
· 출연/우지훈, 김영철, 진선규, 구지선, 김지현, 박보경, 조현식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점프

15일 **금요일** 오후 7:30,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7일 일요일  
오후 2: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대표 퍼포먼스 '점프'.

요절복통 별난 무술가족 이야기가 현란한 아크로바틱과 함께 펼쳐진다.

**입장료** 1층 40,000원 · 2층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KNN(1577-7600)

### 극단 포구 **패션 오브 빌라도**

15일 **금요일** 오후 7:00, 16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7일 일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의 원로배우 어주선, 윤석이 선생의 회갑 기념공연을 겸해 열리는 극단 포구의



##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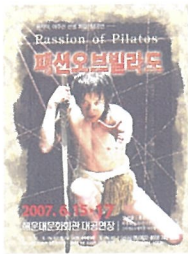
■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우/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아시아브병원 협진지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학교법인 대안대학교장로회 후원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34번지 602-702

대표 전화 (051) 990-6114  
전화 예약 (051) 990-6900  
응급의료센터 (051) 990-6119  
임야방진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6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6155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2번째 정기공연.  
성서에서 예수를 재판하고 십자가형을 내렸던 유대총독 빌라도를 주인공으로, 그의 두려움과 고뇌, 회개를 그린 창작극이다.

· 작, 연출/홍성현  
· 출연/허성조, 이용희, 엄준필, 김은미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극단 포구(632-4550)

변현주 1인극 어머니 날 낳으시고

6월 15일(금)-7월 15일(일) 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월-목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일란성 쌍둥이 영란, 정란 두 자매의 회고를 통해 가부장적 제도에 억눌려 살다간 어머니의 거친 삶을 살갑게 그려낸 배우 변현주의 1인극.

· 작, 연출/이성민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극단 새벽(245-5919)

비보이 퍼포먼스 B SHOW

6월 15일(금)-7월 31일(화)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7:00  
국도 B-Boy전용관



현란한 비보이와 최고의 비트박스, 섬세한 자극의 힙합댄스 팝핀, 락킹 등 힙합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비보이 퍼포먼스.

· 예술감독/이근희  
· 출연/김근서, 황정우, 오리지널리티 칸, 김동규 외  
입장료 일반 50,000원 · 학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원스테이지(1588-0881)

웃찾사 부산나들이

17일 일요일 오후 4:00, 7:00  
KBS 부산홀



TV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 인기코너인 서울나들이, 정리정돈, 친절한 형수씨 등에 출연중인 개그맨들이 총출동하는 웃찾사 부산공연.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트인부산(442-6500)

유U;콘서트 주원성&전수경  
드라마 뮤지컬 갈라공연

19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주원성 전수경  
뮤지컬 1세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부 뮤지컬 배우 주원성, 전수경이 펼치는 뮤지컬 갈라공연.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사실적으로 간다 Part 2

그 자식 사랑했네

19일(화)-24일(일) 오후 4:00  
(일요일은 오후 3:00) 가마골소극장

어디서 봤음 직한, 들었을 만한, 경험했을 만한 사랑이야기가 무대 위 열정으로 펼쳐진다.

· 작/추민주 · 연출/이재준  
· 출연/민준호, 김지현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평일 낮 공연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2007 젊은 창극 시집가는 날

29일 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를 창극으로 새롭게 각색, 신명과 해학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 출연/왕기석, 김학용, 김형철, 왕기철 외  
입장료 VIP 5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씨티캠프(627-6590)

극단 에저또 육남매

6월 29일(금)-7월 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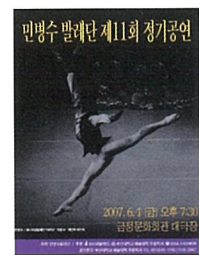
1960년~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부모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육남매의 일상을 구수한 사투리와 웃음으로 그려낸 작품.

· 작/김문홍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정재훈, 구운희, 차동현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극단 에저또(852-9161)

무용

민병수 브이쉬 발레단  
제 11회 정기공연

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지난 10년간 창작발레의 다양화와 대중화에 관심을 가져온 민병수 브이쉬 발레단이 다시 시작하는 11회의 의미와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제 11회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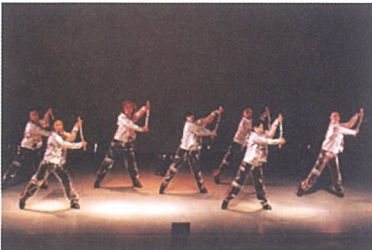


라흐마니노프의 로맨틱하면서도 화려한 선율 속에 발레의 우아한 자태를 선보일 이번 무대에서는 브이쉬 발레단의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는 'Rachmaninov Fantastic Ballets'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을 모티브로 한 'Rachmaninov Piano Concerto'를 선보인다.

· 안무/민병수  
· 연출 및 기획/신효영 · 지도/김희정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부산대학교(510-1740, 510-2947)

### 부산에어로빅스연구회(PASA) 제 6회 정기공연 **뛰어! 소리쳐!**

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에어로빅스 대중화와 전문화를 위해 결성된 부산에어로빅스연구회 6번째 정기공연. 에어로빅스 동호인들과 일반인, 장애인과 유아 등이 출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김미자  
(757-3333, 011-9353-2241)

### 제 13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1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정통 클래식 발레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안무와 새로운 발레 언어의 창작을 위한 실현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펼쳐온 동아발레단의 13번째 정기연주회.

**작품**  
The beauty of five(안무/전신영)  
허공에 빛을 발하다(안무/엄부경)  
1+1=1...?(안무/박미화)  
CRAZY Frog(안무/주정현)  
· 출연/전신영, 김연희, 신세정, 표혜원, 엄부경, 박미화, 조혜진, 주정현 외  
**문의** 신세정(011-9505-9907)

### 8인 8색 춤향

23일 토요일 오후 6:00  
시민회관 소극장



지역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30~40대 중견무용가들이 전통춤의 맥을 잇고자 마련한 무대.

춤꾼 저마다의 특색있는 8인 8색의 다양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작품**  
일무(춤/이정원), 민요조곡(춤/정경희), 청풍야류(춤/고재현), 살풀이(춤/김정원), 태평무(춤/조명호), 교방무(춤/강혜숙), 소고춤(춤/이현주), 영남교방무(춤/춤소리예술단)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김정원 춤소리 예술단  
(636-8071, 017-567-8071)

### 2007 연분 흥 현대춤 공연 -시선의 재발견

27일-28일 수-목요일 오후 7:0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형식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춤세계를 구현하는 젊은 춤꾼들의 페스티벌 프로젝트 그룹 춤대 연분 흥의 7번째 정기공연.

'시선의 재발견'이란 타이틀로, 일상적인 사물과 관계들을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 우리의 고정관념을 낫설게 하는 창작초연 작품이 소개된다.

**작품**  
PLAY IT FOR TODAY-작은 연못 안에서  
(안무/김지옥 · 출연/임란정, 김지옥)

하늘은 파랗다...(안무, 출연/조희정)  
봄비(안무/엄지연 · 출연/남대우, 김태경, 조희정, 이지혜)  
거짓말(안무/강희정 · 출연/백선우, 김종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원향미(016-756-1962)

## 아 동 극

### 가족뮤지컬 걸리버여행기

1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회전무대와 대형 그림자배경을 이용, 동화속의 거인국과 소인국을 무대에 재현한 신나는 가족뮤지컬.  
· 작, 연출/신길용  
· 출연/신길용, 서희경, 고은경, 송인경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가족뮤지컬 두드리 동물음악대

1일 금요일 오전 10:00, 11:20,  
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3일 일요일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독일작가 그림형제의 '브레멘 음악대'를 한국적 퍼포먼스가 가미된 난버벌 뮤지컬로 제작한 '두드리 동물음악대'.

· 연출/김한울  
· 출연/유용경, 김서희, 채길병, 권순현 외

##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극단 심인(031-499-6658)

###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니안다와 디지털 대소동**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속 인물들이 등장, 꿈과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 캐릭터 뮤지컬.

· 작, 연출/김세진  
 · 출연/김혜진, 이선지, 김기양, 조미영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극단 한샘(1544-9786)

### 전래동화 뮤지컬 **팔죽할멈과 호랑이**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6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6일 토요일 오후 1:00, 3:00, 17  
 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23일-24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민담으로 전해내려오는 전래동화를 흥겨운 사물장단으로 풀어낸 가족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연출/조일영, 오계영, 송판수, 이선화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 창작 가족인형극 **애기똥풀**

6일 수요일 오후 2:00, 4:00, 7일-  
 8일 목-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9일 토요일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다리가 불편한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하늘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감동이 있는 창작 가족인형극.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 보고 느끼는 신나는 마술쇼

7일 목요일 오전 10:00, 11: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비둘기마술, 과학마술, 부양마술, 코믹마술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마술세계가 펼쳐지는 신나는 마술무대.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마술나라(02-3487-2643)

### 가족뮤지컬 **백조의 호수**

15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16일-17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00,  
 11:20, 6월 30일-7월 1일 토-일  
 요일 오후 12:00,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마법에 걸린 오데트 공주를 구해내기 위해 사악한 마법사와 맞서는 지크프리트 왕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2,000원(전화예매시 9,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00,  
 11:20, 3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7월 1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신데렐라를 현대적 시각으로 구성,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

운 클래식선율로 재탄생한 가족뮤지컬.  
**입장료** 균일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극단 심인(031-499-6658)

### 뮤지컬 **짱구는 못말려**

6월 30일 토요일 오후 2:00, 4:00,  
 7월 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KBS 부산홀



악당 파라다이스 킹에게 납치된 짱구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짱구가족을 통해 가족과 친구의 소중한 힘을 깨닫게 하는 가족뮤지컬.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문의** 공연기획 늘푸른(467-2562)

## 영화

### 가족 애니메이션 특별전

1일(금)-6일(수) 오후 12:30,  
 1:30, 2:40, 3:50, 5:00, 6:10,  
 7:30(월요일 휴관) 시네마테크 부산

웃음, 사랑, 용기, 꿈 등 4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국내외 수준높은 걸작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가족 애니메이션 특별전.

**입장료** 섹션별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한국 영화의 오늘

7일(목)-19일(화)  
 시네마테크 부산(시간미정)



숨,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상어,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좋은 배우 등 상업영화의 그늘에 가린 한국 예술영화의 걸작들을 상영하는 특별전. 외

국인들을 위한 영어자막이 제공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콘서트

### 인순이 콘서트

2일 토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와우엔터테인먼트(740-6001)

### M.C The Max '月兒無敵' 2007 Tour

3일 일요일 오후 6: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샤인엔터테인먼트(442-0877)

### 이승철 콘서트

9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요요기획(622-5744)

### SG 워너비 부산콘서트

17일 일요일 오후 6:3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Ymix(757-9876)

### 이문세 동창회-함께 부르는 음악회 부산공연

22일 금요일 오후 7:30, 23일 토요일  
오후 3:00, 7:30, 24일 일요일  
오후 3: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균일 66,000원

**문의** 쇼플레이(622-0609)

## 행사

### 시와 춤과 소리의 만남

5일 화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인을 비롯한 청소년, 시민들의 시낭송  
와 무용공연 및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시와 춤과 소리의 만남.

**입장료** 초대

**문의** 금정문화원(581-9071~2)

### 제 62회 시울림 시낭송회

13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최취웅, 탁영완, 배기환, 최정  
란, 강문출, 고영자, 이분자  
· 사회/한창욱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017-573-6080)

## 전시

### 한국현대미술 속의 자연

3월 9일(금)-7월 17일(화)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 Spirit of Africa

4월 24일(화)-9월 30일(일)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문의**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055-340-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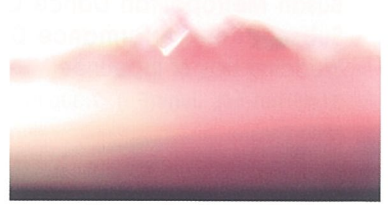
### 2007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을 엮다

5월 26일(토)-6월 23일(토)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010-8343-6666)

### 김희영 작품전

5월 29일(화)-6월 30일(토)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윤항남 서양화展

5월 31일(목)-6월 12일(화)  
타워갤러리



윤항남 작  
'5월 천란한 날에'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이상엽 사진전

6월 5일(화)-6월 10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제 23회 부산전국사진공모전

6월 9일(토)-6월 13일(수)  
시민회관 1층 전시실

**문의** 사진협회 부산지회(631-4111)

### 서양화 소품전

6월 14일(목)-6월 30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 중국 고대 청동기·옥기展

6월 15일(금)-9월 9일(일)  
부산박물관 특별전시실

**문의** 부산박물관(624-6341~2)

### 몸과 권력

6월 26일(화)-7월 8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

## Recommended Performances in June

###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56th Subscription Performance Dance Drama 'The Wedding Day of Ippeunee(Miss. Pretty)'

31st(Thu)-1st, June(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is an traditional and familiar old story but this version is not old fashioned. It is adapted in fresh and enjoyable dance drama. Regardless of age or sex, we can enjoy it.

- Composition & dance composition/Hong Kitae
- Drama/Oh Youngjin · Adaptation/Ha hyunkwan
- Director/Oh Jungguk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s : 607-6070

### B-Boy KOREA

2nd(Sat) 3:00, 7:00p.m. 3th(Sun) 2:00, 6:00p.m. Busan Citizen Hall Main Theater



It's an new attempt which is fused with B-boy and traditional music. Now as a new cultural trend, B-boy dance is loved by many audiences.

This story is about B-boy dancers' life, competition, and their passion through Blackpoint and Yabi. Blackpoint is a legendary dancer and Yabi become a top dancer by an inappropriate way.

- Direct/ Kim Byongho · Music/ Lee Dongjun
- Dance composition/ Poppin Hyunjoon

Ticket : R 40,000Won · S 25,000Won · A 15,000Won  
For More details : 1588-1795

### 'Well-being Concert' with Busan citizen 11a.m. Happy Concert, by Park Hoseong and Kim Youngyim.

8th(Fri) 11:00a.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Kim Youngyim is a well-known traditional singer who has performed in various touching stages. Kim offers Hoesimgok(song for life and parents). There are another event

which is participated in audiences themselves. It's a exciting singing lesson.

- Conduct/Park Hoseong · Traditional song/Kim Youngyim

Ticket : All Seat 15,000Won  
For More details : 607-6110

### Establishment Performance by Korea Showpera 2007 Showpera – a man of Verdi and a woman of Puccini

9th(Sat) 4:00,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Showpera is a crossover genre and now we can enjoy show and beyond opera. Korea Showpera is trying to show diverse music genres at the same time. This work is adapted by modern style and new drama music. We can meet another classical opera such as Verdi and Puccini in comic way.

Program

- 'La donna e mobile' of Opera 'Rigoletto'
- 'Vanne, Credo in un Dio crudel' of Opera 'Othello'
- 'Quando m'envo' of Opera 'La Boheme'
- 'Dio, che nell'alma infondere'of Opera 'Don Carlo'
- 'Nessun dorma!' of Opera 'Turandot' etc.

- The head & art direct/ Bae Sujin
- Direct/ Bang Jeonguk
- Conduct/ Son Kyenggyun
- Script/ Park Jaeyoung
- Orchestra/ Youngnam Symphony Orchestra
- Special Guest/KBS Gagman Yun Seongho, Elect-violinist Do Jinmi, B-boy team Nataraza Clew

Ticket : VIP 100,000Won · R 70,000Won · S 50,000Won  
· A 30,000Won · B 10,000Won  
For More details : 501-3999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31st Subscription Concert

14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Conductor Ki-Sun Sung is well-known for a exact rhythmic sense and sensitive expression. And Flutist, Jasmine Choi is Vice-principal of Cincinnati Symphony Orchestra.

We can expect their fantastic harmony.

Program

- E.Humperdinck/Overture to 'Hensel und Gretel'
- C.Reinecke/Flute Concerto in D Major op.283
- J.Sibelius/Symphony No.2 in D Major op.43

- Conduct/Ki-Sun Sung
- Flute/Jasmine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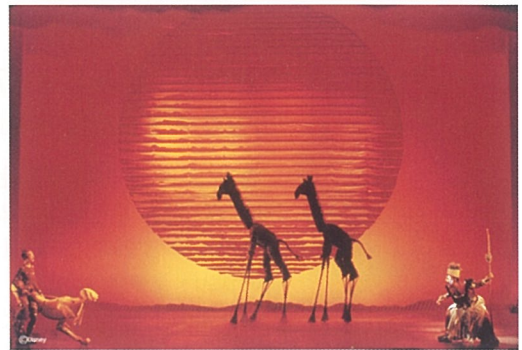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s : 607-6101~4

# 사자 왕, 뮤지컬의 왕 라이온킹

이상훈 · 뮤클(뮤지컬&클래식) 운영자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타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제목이다. 그렇지만 또한 인기 뮤지컬 제목이기도 하다. 1998년 토니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뮤지컬 라이온킹이다. 라이온킹의 연출자인 쥘리 테이머가 여성으로 최초로 연출자상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작품상을 비롯 안무, 의상 디자인상 등 여섯 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이제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라이온킹은 애니메이션 보다는 뮤지컬로 더 이름이 알려져있다. 현재에도 뉴욕, 런던,



동경 등의 도시에는 길게는 8년 이상, 이 작품을 공연하고 있으며 이미,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 서울 잠실에 위치한 사롯데에서 오픈 런 방식으로 공연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 200회를 맞이한다. 이미 15만명 이상이 관람을 하였으며, 올해 말을 기점으로 국내 뮤지컬계에 많은 기록들을 양산할 것 같다.

그렇다면, 라이온킹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선 라이온킹이 열리는 잠실 사롯데극장으로 가보자.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 사롯데는 객석수 1,154석으로 1층 642석, 2층 512석 1층 맨 뒷자리부터 무대까지의 거리는 23M(2층의 경우는 28M), 공연장 전체가 R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의 객석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프로시니엄타입의 무대는 254평으로 보통극장의 4배에 달하는 바톤을 설치, 라이온킹의 획기적인 무대장치를 담아내고 있다. 이밖에도 조명과 음향 등의 시설부문에만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어 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Circle of Life. 라이온킹의 첫 장면. 평화의 땅 프라이드 랜드에 사자왕 무과사의 아들 심바의 탄생식이 열린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각종 동물들이 제각기의 장치를 하며 모두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라이온킹의 가장 백미가 되는 장면이며, 이때의 모습은 실제로 무대에서 보지 않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장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디즈니사는 몇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엄격히 노출을 제한한다. 이 첫 장면은 감히 뮤지컬 사상 최고의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Hakunamatata 등의 뮤지컬 넘버와 아프리카 풍의 음악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는 엘튼존과 팀라이스 콤비가 맡았으며, 또한 레보 M의 음악은 아프리카의 정신과 자연을 자부심 있게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라이온킹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다. 이 공연이 제작되고, 무대에 올려지기까지는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훌륭한 공연이 우리말로 한국에서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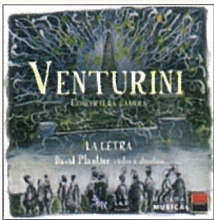
## ● 새로 나온 음반



### 2005년 25회 La Roque d'Antheron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실황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하는 피아노의 저녁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차세대 거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프랑스의 형제 음악가 르노 카푸송과 고티에르 카푸송의 열연을 뛰어난 고해상도의 화면과 DTS 서라운드 입체음향으로 만나게 되는 최고의 기회이다.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클래식'으로 시작되는 이 특별한 콘서트는 아르헤리치가 독주를 맡은 같은 작곡가의 피아노협주곡 1번으로 열기를 더해간다. 이어지는 작품은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르노 카푸송의 참신한 패기와 아르헤리치의 노련한 원숙미가 만들어내는 절묘한 조화가 이채롭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카푸송 형제와 아르헤리치가 최고의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 프란체스코 벤추리니(1675-1745) : 실내 협주곡 Op.1~2번, 5~6번, 8~9번 (연주/라 체트라, 지휘/데이비드 플랑티에)

벤추리니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몇몇의 잊혀진 이탈리아 바로크 협주곡 작곡가 중 한 명이다. 당시에는 유명했던 그의 작품들은 확실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오늘날 소홀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그의 실내 협주곡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빌려온 양식을 조합하여 만들어졌으나 뚜렷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보했다.

텔레만, 젤렌카나 헨델의 합주 협주곡 Op.3의 오케스트라 소리의 세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생생하고 매력적인 협주곡 바순, 오보에와 바순의 앙상블 그리고 현악기의 솔로, 듀엣, 트리오를 위한 풍부한 스코어에 반할 것이다.



### 안동림 교수의 이 한 장의 역사적 명반 시리즈 17탄 로스트로포비치의 림스키-코르사코프 : 쉘헤라자드

안동림 교수의 '이 한 장의 역사적 명반' 시리즈 17탄으로 '로스트로포비치의 림스키-코르사코프 : 쉘헤라자드'가 CD화 되었다. 지난 4월 27일 갑작스럽게 타계한 우리시대의 위대한 첼리스트이자 마에스트로, 로스트로포비치 추모 특집 앨범으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을 만끽할 수 있는 '쉘헤라자드', '스페인 기상곡'을 로스트로포비치의 호방하고 감각적인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음반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녹음한 무소르그스키 '민둥산의 하룻밤'을 특별히 보너스로 수록하였다.



###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장영주)의 10년 만의 베스트 앨범 사라 장 베스트 영 비르투오조

젊은 거장, 사라 장이 펼치는 다양한 광휘의 스펙트럼, 초절정 테크닉과 찬란한 열정으로 점철된 장영주의 베스트 음반이다. 신동을 지나, 천재를 거쳐 거장으로 거듭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의 10년만의 베스트 앨범이다. 16장의 앨범에서 선별한, 가장 정열적이고 기교적인 트랙들로 채워져 현존하는 최고 테크니션의 놀라운 기교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베스트 앨범인 '스윗 소로우(Sweet Sorrow)'가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선율을 담았다면, 이번 베스트는 초 절정 테크닉을 바탕으로 비르투오조의 면모를 과시하는 트랙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올린 소품, 환상곡, 무반주 솔로, 협주곡, 무곡, 소나타 등 다양한 장르를 총망라했고 앨범 데뷔 후 15년간 장영주의 신동과 천재의 시대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다.

## 진옥섭의 藝人名人 노름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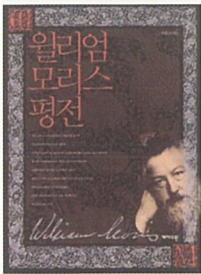
진옥섭 지음 / 생각의나무 / 231p / 10,000원



연극을 하다가 탈춤을 통해 전통과 춤에 빠져든 전통예술 연출가 진옥섭 씨가 이 시대 마지막 예인들을 만났다. 기생, 무당, 광대, 한량으로서 제 홀로 찬란히 꽃 피웠으나 때론 홀로 남아 외로웠던 그들의 삶과 예술,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다시금 무대로 이끈 한 연출가의 세세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노름마치들의 고아하면서 애절한 사연을 만날 수 있다. '노름마치'는 '놀다'의 놀음(노름)과 '마치다'의 마침(마치)이 합해진 말로 최고의 명인을 뜻하는 남사당패의 은어이다. 노름마치가 나와 한판 놀면 뒤에 누가 나서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결국 판을 맺어야 했다. 이렇게 놀음을 마치게 하는 고수 중의 고수를 노름마치라 한다. 이 책은 노름마치에 관한 보도자료를 엮은 것이다. 신문사나 방송사에 홍보를 요청하기 위해 쓴 보도자료가 이렇게 책으로 엮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아무리 예술의 경지에 이른 노름마치 공연이라 하더라도 그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일. 그가 살아온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해 기자들에게 예술의 전모를 깨닫게 하겠다는 정성과 노력이 가득한 보도자료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 윌리엄 모리스 평전

박홍규 지음 / 개마고원 / 328p / 18,000원



현대 디자인 공예이론의 선구자이자 현대 기능주의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모리스. 지금은 근대 디자인의 아버지로 칭송되지만, 정작 활발한 활동을 하던 당시의 모리스는 소박한 예술을 꿈꾸었다. 그것은 지배계급과 예술가들이 누리는 대대예술에 대한 소소예술이자 생활예술이었다. 그는 '만인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술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생활예술은 만인을 위한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활예술은 민중생활의 즐거움에서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만들 때나 사용할 때 즐거움으로 느끼는 것이 생활예술의 역할이자 용도이다. 이러한 예술이 없으면 휴식은 공허하고 재미없게 되며, 노동은 단지 견뎌내야 하는 육체와 정신의 피로가 된다. 모리스는 생활예술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벽지, 타일, 스테인드글라스, 가구, 책 등 일반 민중들 누구나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영위하는 생활 주변의 사물들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았다. 생활예술이 고급예술을 '따라잡을 수 있으려면' 생활예술을 보완해야 하며, 자본주의가 '가짜' 하급 상품 생산을 통해 생활예술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디자인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거문고 탕고

김진희 지음 / 민속원 / 261p / 15,000원



거문고가 국악에 관심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악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탁월한 거문고 창작음악으로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조화 속에 우리음악의 세계화를 성취한 선구자인 김진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1980년 미국에 유학온 후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남미, 아시아, 오스트리아 등 50여 개국에서 낯선 문화와 한국음악의 만남을 대성공시킨 작곡가다. 이 책은 김진희 씨가 25년간 현대음악계에서 성장한 기록과 거문고 세계연주를 하며 배운 자신의 삶을 정리한 자서전이다. 낯선 연주자들, 각종의 악기를 만나 마치 탕고를 추듯이 그 소리를 사랑하며 함께 했던 연주 생활을 솔직한 문체로 표현하였다.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 간 시점부터 거문고 세계일주, 현대의 여성 음악가들의 좌표까지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기록하여 색다른 자극을 전해준다. 저자가 미국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영국 로열 아카데미홀, 홍콩 페스티벌 등에서 공연한 이야기도 담겨있다.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숨겨진 저력

2007 서울연주회 Hi! Seoul Dynamic Busan!

현경채 · 음악평론가, 국악방송 FM국악당 진행자

그 어떤 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부럽지 않았다. 5월 18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수석지휘자 박호성)의 서울 연주회 “Hi! Seoul Dynamic Busan!”이 그랬다. 지방악단의 서울 연주회라면 조금은 위축되거나 다분히 지방스러운(?) 연주회를 상상하게 되지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서울연주회는 한마디로 위풍당당 그 자체였다.

성공요인 하나, 서울관객이 주목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서울 연주회는 다른 국악연주회 보다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다. 특히, 평소 공연장 나들이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국악계의 거물급인사들의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볼 때 대단한 수확이다. 이번 연주회가 서울 관객과 국악계의 기대를 받은 이유는 개성 넘치는 부산식 국악관현악곡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자신감 넘치는 연주로 관객의 기대에 부응했다.

성공 요인 둘, 낭만과 열정의 부산음악을 연주했다. 부산의 특징을 바다와 젊음, 열정, 다이내믹 등으로 압축하여 감각적인 우리 음악으로 담아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서울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국악방송으로 생중계된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담은 6곡의 음악이 연주되었다.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해운대 위에 잔디’(이승곤 작곡)는 아름답고 서정적이지만 다분히 젊은이들의 미래 지향적인 음악이었으며, 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바다의 사계’(신영순 작곡)는 역동적인 국악관현악 연주와 낭만적인 색소폰이 어우러진 음악으로 초여름 밤의 정취와 분위기적으로 잘 들어맞는 음악이었다. 특히 뒷부분의 엠폴리장단의 해석이 좋았던 음악이다. low-voice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문 열어라’(진규영 작곡)는 부산의 대표적인 시인 강은교의 시 ‘문 열어라 온갖 차별이여’를 중심으로 작곡된 음악으로 시의 운율이 한국의 토속적인 운율과 만나 생동감 있게 살아난 음악이다. 이곡은 단순히 서양창법과 국악의 만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이색적인 음악이 만나 제대로 섞이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꿈틀거리는 한국의 운율이 서양의 베이스 창법으로 재연되며 일어난 결과물은 관객들에게 짜릿한 전율로 전달되었다.

서양음악의 의존도는 극복해야할 숙제 시대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민첩하게 담아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바다’ ‘항구’ ‘축제’ 등 부산을 주제로 한 음악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국악관현악단과의 차별성이 있는 자신만의 레퍼토리 개발에 성공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며, 또한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음악으로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서양음악의 의존도가 다분히 높은 것은 극복해야할 숙제이다.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흥과 열정의 무대 선사

-5월 18일 2007 Hi! Seoul Dynamic Busan!-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 5월 18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가진 '2007 Hi! Seoul Dynamic Busan!' 공연에서 부산의 흥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로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젊은이의 희망찬 모습을 노래한 창작관현악 '해운대 위에 잔디', 부산 사계절의 모습을 세계의 악장으로 표현한 색소폰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바다의 세계', 강은교 시인의 '문열어라 온갖 차별이여'를 중심으로 작곡한

성악과 관현악 '문열어라', 2005년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을 2006년 새롭게 편곡한 '축제의 향연 II' 등 전통의 맥을 잃지 않으면서 새 시대에 맞는 특색있는 위촉곡을 중심으로 부산 특유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다이내믹한 무대를 선사했다.

##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부산시립극단 '수전노' 순회공연 개최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소의 계층에게 즐거움을 주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6월에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6월에는 부산시립극단이 16일 금곡청소년수련관 공연을 시작으로 25일까지 7회 공연을 펼친다. 17세기 프랑스희극을 절정으로 이끈 몰리에르의 대표작 '수전노'는 부유하지만 인색한 수전노 아르빠공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지난 3월 정기공연 작품으로 수전노를 무대에 올려 큰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극단은 5월에

열린 2007 부산국제연극제 '세계명작 뒤집기'에 수전노를 초청받아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 ■ 주요 일정

- 6월 16일(토) 11:00 금곡청소년수련관 대강당
- 6월 18일(월) 16:00 송도 소년의 집 강당
- 6월 19일(화) 16:00 공창복지관 강당
- 6월 20일(수) 15:00 기장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강당
- 6월 21일(목) 16:00 부산역청사 5층 대강당
- 6월 22일(금) 16:00 동의의료원 대강당
- 6월 25일(월) 16:00 보훈병원 대강당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문제

-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된 우리나라 도시.
- 금관 약기의 하나. 활짝 핀 나팔꽃 모양이며, 음식은 부드럽고 애조를 띤다.
- 오지여행 탐험으로 '바람의 딸'이란 애칭을 얻었던, 현재는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 비전 긴급구호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희곡에서, 해설과 대사를 뺀 나머지 부분의 글.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따위를 지시하거나 서술한다.
- 러시아의 대표적인 술. 알코올 40~60%로 무색투명하고 무미·무취.
- 영화 '싸이코'에 이어 히치콕 감독 전성기에 만들어진 걸작.
- 조종환이 번안한 신소설. 일본의 오자키 고요가 지은 '금색야차(金色夜叉)'를 번안한 것으로, 이수일과 심순애의 비련을 그렸다.
- 서정적인 연주로 국내에 많은 음악팬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데 조콘다의 부인 엘리자베타를 그린 초상화. 정숙한 여인의 신비스러운 미소로 유명하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사냥꾼. 여신 아르테미스의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은

후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진중(陣中)에서 쓴 일기.
- 조선 왕조 최후의 황녀(1912~1989). 고종의 막내딸로 열세 살 때 일본에 볼모로 잡혀가 대마도 도주(島主)의 아들과 강제로 결혼하였으며, 38년 뒤 귀국하였다.
- 단행본과 잡지의 특성을 동시에 갖춘 출판물. 부정이 간행물.
- 민속 음악에 속하는 기악 즉주곡 형태의 하나. 가아금, 거문고, 대금, 해금, 아쟁 순으로 발생하였다.
- 국악음반으로는 드물게 100만장 판매기록을 세웠던 '회심곡'의 주인공인 국악 명창. 6월 8일 열리는 부산문화회관 웰빙콘서트에 출연한다.
- 1992년 노래 '난 알아'로 데뷔,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며 문화의 한 획을 그었던 가수.

세로문제

- 작곡가 하이든이 1798년 밀턴의 '실낙원'을 바탕으로 완성한 오라토리오.
- 네트를 사이에 두고 라켓으로 셔틀콕을 서로 치고 받는 구기 경기.
- 마틴 스콜세지 감독 · 로버트 드 니로 주연, 유하 감독 · 조인성 주연의 영화명.
- 화학 및 생물을 연구하여 생물의 진화를 주장하고, 1858년 자연선택에 의해 새로운 종이 기원한다는 자연선택설을 발표했다. 저서로 '종(種)의 기원' 등이 있다.
-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가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 치밀한 구성과 화술로 갱 두목을 속이는 사기꾼 일당을 다룬 조지 로이힐 감독, 폴 뉴먼,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영화.
- 동화 '어린왕자'에 등장하는, 아프리카에서 지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의 하나.
- 베토벤 심포니 3번은 원래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으나 훗날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곡목을 '영웅'으로 바꿨다고 한다.
- 조선 세종 16년에 장영실, 김빈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물시계.
- 영화 '숨'으로 칸영화제에 참가한 감독.
- 가난한 백성을 무료로 치료하고 여자들에게 침술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조선 시대 의료기관.
- 청송군 부동면 이천리에 있는 저수지로 밀동의 반이 물에 잠겨 신비로움을 느끼게 하는 150년 된 양뿔나무가 유명하다.
- 두 손을 동시에 앞으로 뻗어 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양다리를 모아 상하로 움직이며 발등으로 물을 치면서 나아가는 수영법. 버티플라이.

시간호 정답

사	랑	티	켓	반	달	리	즘	
랑	벳			딛				천
가	야	신	토	불	이		윤	년
	상	춘	곡		원	일		학
오	곡			이	과	수	비	
르	서	울		매		경	보	
간	다	라		이	기	대	이	립
	벌		탈	조				심
	고		리	영	매			크
아	베	마	리	아		화	성	

- 산마루골터(구 돈방벌매)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임해숙(연제구 거제1동) 고혜용(수영구 광안1동) 박귀남(금정구 남산동) 서옥엽(동래구 인락1동) 김주형(남구 대연5동)
- 김재금(금정구 장전동) 백환진(사상구 주례3동) 이은정(해운대구 우1동) 홍영경(사하구 하단동) 황규진(북구 회명1동)
- 큰집 식사권  
김혁(금정구 부곡동) 이경란(서구 암남동) 최범성(금정구 구서2동) 송화선(수영구 광안4동) 성영순(동래구 철산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성은영(해운대구 반여2동) 신희경(영도구 동삼동) 이옥철(사하구 신평2동) 이은숙(양산시 북정동) 유미정(사상구 감전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산마루 골터

# · 짬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UN로터리 문화회관 영빈관 예약문의 : 611-4040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6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유순웅 모노드라마’

팔애 성화에 못이겨 찾게 된 내 인생 최초의 연극공연이었습니다.

실제 삶이 아닌가 싶을 만큼 배역과 일체된 유순웅씨 혼신의 연기와, 즉석 요구에도 무리없이 따라주는 관객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좋았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교차하면서 매 순간 극에 동화되어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 노준호

‘부산하모니합창단’

오늘 나는 하모니합창단의 연주에서 중년을 바라보는 성인들이 만들어내고 뿜어내는 즐거움의 합창, 배려하는 합창, 진심의 합창을 보았다. 스스로 하고 싶어 노래하는데서 오는 즐거움이 묻어나고, 밸런스화 블렌딩을 위해 동료와 결눈질을 나누고 서로 소리를 들으며 노래하는데서 오는 배려하는 마음,

좋은 합창을 하고 싶어 진심으로 노력하는 진지함이 절로 배어나는 멋진 하모니를 사랑하게 되었다.

- 김종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0회 정기연주회 그레이트 콘서트’

기능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균질적인 수준에서, 독주자,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하나로 잘 융해되어, 견고하게 구축된 음악에 고고한 품격이 감도는, 그야말로 지성과 감성이 이상적인 균형을 이룬 감동적인 연주.

어머니의 입종을 지키지 못해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건반을 짚어 나가는 노태가의 모습을 보며, 저 는 손으로 계속 뛰는 가슴을 누르며, 뜨거워지는 눈자위를 계속 껌뻑거리고, 시큰거리는 코끝을 연신 훌쩍 거렸습니다.

하늘 나라에 계신 어머니를 부르는 그 간절한 피아노 소린 진정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천국으로 띄우는 슈베르트였습니다. - Go ! classic 아이디 ccawoong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과 함께 한 5월 테마여행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떠난 우포 자연 여행



5월 11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과 함께 떠난 5월 테마 여행지는 창녕 우포늪.

2008 랍사 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포는 더 이상 조용한 시골 마을이 아니다. 이른 아침, 부산에서 출발한 일행들과 함께 도착한 우포 생태학습원은 5월 11일 하루 예약자가 2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느 때보다 북적였다.



우포는 사계절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반긴다. 계절마다 시간을 달리해 우포를 찾은 사람이라면 우포의 변화만으로도 자연위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부산문화회관 테마 여행팀이 우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해 12월 테마여행에서 겨울 색 짙은 우포늪의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 속을 날아다니던 새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5월 다시 찾은 우포는 봄기운이 완연하다. 새롭게 움튼 수생식물과 봄빛을 담은 물빛, 활기찬 날개짓을 하는 새들에게서 한껏 봄이 느껴진다. 우포생태학습원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며 우포늪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류에게 늪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자연 생태 늪을 보호해야 하는지 다시금 알게 되었다.



우포 생태 탐방 이후 일행들이 찾은 곳은 그루꿈논집.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에 있는 폐교를 체험 학습장으로 꾸민 그루꿈논집은 '꿈을 담은 그릇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주인장이 부산에서 활동한 탓에 경상도 사투리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 의미와 맞아 떨어진 셈

이다.

넓은 운동장에 아담하게 지어진 건물, 운동장의 그네, 넓은 그늘을 드리우는 아름드리 나무가 어릴 적 초등학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체험학교를 운영하는 김진숙씨와 김종구씨가 준비한 맛깔스런 비빔밥으로 시장을 달랜 뒤 도자기 만들기 체험 행사가 이어졌다.

일흔을 넘긴 참가자들에서부터 초등학교 학생까지 모두 가족이 되어 흠을 빚었다. 김진숙씨의 명쾌한 설명을 들으며 그릇 속에 꿈을 담은 사람들의 모습에 어느 때보다 즐거움이 넘쳤다. 초등학교 교실에 앉은 탓일까 동심으로 돌아가 체험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먼저 끝낸 회원들은 옛 추억을 더듬으며 초등학교 운동장을 거닐고 함께 온 가족들과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가졌다.

도자기 체험에 이어 부산시립무용단 흥기태 안무자와 함께 하는 탈춤한마당. 우리 문화이면서도 그동안 엄두도내지 못한 우리 탈춤을 흥기태 안무자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배워보았다.

모두 처음 추어보는 탈춤, 무용단에서 직접 준비한 한삼을 손목에 끼고 탈춤 대열에 서게 된 회원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 흥기태 안무자는 몸을 움직이기 주저 하는 회원들에게 봉산탈춤의 주요 춤사위를 쉽게 설명하며 우리 춤 세계로 이끌었다. 사용하지 않는 신체의 모든 근육을 풀어주며 온몸으로 탈춤을 춘 회원들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얼썩~를 외쳤다.

우포에서 보낸 5월의 멋진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 정기회원들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과 찬란한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6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0명을 추천, 1인 2명에게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천,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발 표 : 6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의 초대〉지면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 7월 13일(금) 석남사, 배내골 팜스테이마을

초여름 아침의 고즈넉한 산사와 싱그러움이 가득한 산속 마을에서의 하루!

- 08:3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석남사 도착
- 11:00 배내골 장선 휴마을 도착
- 12:00 점심식사
- 13:00 팜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참가  
(두부만들기, 감자, 토마토따기 등)
- 16:00 배내골 출발
- 17:00 부산문화회관 도착



### ▶ 8월 10일(금) 비봉내와 함께하는 여름 여행

사천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자란 비봉내 대나무 마을에서 즐기는 대나무 숲 산책과 별주부전의 고장 비토리 앞바다로 떠나는 무인도 대탐험.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비봉내 팜스테이 도착  
대나무 숲 산책 및 대피리만들기
- 12:30 중식
- 14:00 무인도 탐험
- 16:00 비봉내 팜스테이 출발
- 17:30 부산문화회관 도착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6월 당첨자

### ▶ 6월 8일(금) 통도사 서운암 들꽃 기행과 크루즈 선상음악회



####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엄지영(사하구 장림2동)  
류종우(남구 대연3동)  
왕석동(수영구 망미2동)  
서명철(남구 대연동)  
정창숙(연제구 연산9동)  
김영옥(해운대구 좌동)  
김시정(부산진구 양정동)  
유분조(해운대구 반여2동)  
신미영(서구 암남동)  
김문정(사하구 감천동)

####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김현주(동래구 사직2동)  
김명숙(남구 용호1동)  
김은경(동래구 명륜동)  
오세찬(동래구 온천3동)  
최찬조(금정구 구서동)  
장새봄(해운대구 좌동)  
김병수(남구 감만1동)  
조경순(남구 용호1동)  
정순금(사하구 감천동)  
정명희(서구 남부민2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생태음악회 상생 2007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인간을 삶을 소재로 한  
서정성 넘치는 창작 국악관현악의 향연



박호성



이명일



박성희



정선희

## 프로그램

이준호/창작관현악 '산야(山野)' (부산초연)

이준호/25현 가야금협주곡 '바람강' (부산 초연)

유은선/창작관현악 창구만들기 (바람, 빛)(부산초연)

노래와 관현악/그 땅, 그 하늘(배창희 곡), 아리요(정진수 곡),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김선 편곡)(부산초연)

이건용/창작관현악 '산곡'

## 2007. 7. 5(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 장 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공연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 “웰빙 콘서트”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공연 일정

-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2. 8(목) 11:00  
지휘/금난새      협연/김영희(바이올린, 부산대 교수)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 3. 16(금) 11:00  
지휘/박호성      협연/심수봉, 최의옥, 안주희, 방병원, 박성희, 정선희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5. 18(금) 11:00  
지휘/금난새      협연/이성주(바이올린)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 **박호성과 만나는 11시 해피 콘서트** 6. 8(금) 11:00  
지휘/박호성      협연/대중가수, 국악인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 22(수) 11:00/16:00  
지휘/금난새      협연/박혜령(마림바)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 **박호성과 만나는 11시 토크 콘서트** 10. 5(금) 11:00  
지휘/박호성      협연/저명인사와 국악인 출연(토크 형식)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12. 6(목) 11:00  
지휘/금난새      협연/백재진(바이올린, 동덕대 교수)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공연·예약 문의 ■

- 부산문화회관 607-6042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입장권 ■ 균일 15,000원

- 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
- 부산은행 티켓365 <http://www.ticket365.co.kr> 1588-2528, 부산은행 전자점

■ 할인 ■

- 정기회원 : 홍보부에 예약 후 계좌입금회원에 한하여 30% 할인 (1인 4매)
- 단체관람 : 30명 이상 단체신청시 10% 할인 (1인 4매)



# 부산시립교향악단 2007 차기 공연 주요 일정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후 7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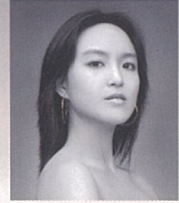


지휘 • 성기선  
Ki-Sun Sung

6월 14일 (목)

제431회 정기연주회

홀퍼딩 "헨젤과 그레텔" 서곡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 F. 최나경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



Jasmine Choi



지휘 • 리 신차오  
Xincuo Li

9월 14일 (금)

제432회 정기연주회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 Vn. 백주영  
바그너 지크프리트 목가  
R.스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Ju-Young Baek



지휘 • 곽 승  
Sung Kwak

10월 12일 (금)

제433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광시곡 ... Pf. 김혜정  
홀스트 행성



Hae-Jung Kim



지휘 • 이동신  
Dong-Sin Lee

10월 30일 (화)

제434회 정기연주회 '부산연주인사리즈'

백용주 관현악을 위한 "무념"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 Vn. 임지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 Pf. 백민정  
우중역 백두산



Ji-Min Lim



Min-Jung Baek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Alexander Anissimov

11월 16일 (금)

제435회 정기연주회

드뷔시 신성한 무곡과 세속적 무곡 ... Hp.  
김영립 승천  
메시앙 피아노 협주곡 제1번 ... Pf. 에스더 박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 Pf. 에스더 박  
쇼스타코비치 발레 모음곡 제1번



Young-Lip Kim



Esther Park

12월 21일 (금)

2007 송년음악회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Alexander Anissimov



Carl Orff (1895-1982)

2007 summer

# 더더 준비하는 여름 휴가여행

[부산 ↔ 괌, 세부 직항] 편안한 직항 노선 이용, 최고의 휴양지로~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www.tourfun.co.kr](http://www.tourfun.co.kr)

NAVER

투어펀

TM

## 가족형 휴양여행

[세부 직항]

**세부/코스타벨라 리조트 4일**

포함내용 **63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리조트 내 자유시간, 마젤란십자가, 성어거스틴 교회, 특식 1회 (샤브샤브), 여행자보험

[세부 직항]

**세부/아일랜드 호핑투어 4일**

포함내용 **65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디스커버리투어, 호핑투어 (섬일주+줄남사+스토클링+씨푸드) 시내관광, 특식 2회, 여행자보험

[괌 직항]

**괌 아웃리거 리조트 4일**

포함내용 **88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해양수족관, 리조트 내 자유시간, 괌 시내관광, 특식 2회, 여행자보험

## 추천 커플여행

휴양지의 여왕

**방콕/파타야 4일**

포함내용 **58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에메랄드사원 왕궁, 수상시장, 새벽시장, 타이거जू, 산호섬 관광, 특식3회, 여행자보험

천가지의 표정을 가진

**홍콩/디즈니랜드 3일**

포함내용 **67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스타거리, 빅토리아피크 야경, 윙타이신 사원, 디즈니랜드 1일 자유관광, 여행자보험

세계 3대 해변

**마닐라/보라카이 5일**

포함내용 **84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오일맛사지, 리조트 내 자유시간, 시내관광, 특식2회, 바나나보트, 여행자보험

## 워터 테마파크 여행

국내 테마파크여행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2일**

포함내용 **142,000원~**

왕복교통, 팁포함,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캐리비안베이 자유이용권, 사파리월드, 숙박비, 식사2회

중국 최대의 온천 테마파크

**북경/궁중요리/춘취원 온천 4일**

포함내용 **55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만리장성, 천안문, 춘취원 호텔(5성급) 워터파크, 자금성, 천단공원, 특식 5회, 여행자보험

벳부스기노이 호텔 특급온천

**아쿠아비트/유후인 3일**

포함내용 **799,000원~**

왕복항공, 공항세, 팁포함, 천만궁, 아소산, 유행재배지, 지옥온천, 유후인 온천 마을, 특급 온천 호텔 2박, 아쿠아비트(워터파크)

## 프리스타일 자유여행

**후쿠오카 프리스타일 2일**

추천일정 **219,000원~**

하우스텐보스 - 텐진 변화가 쇼핑 - 캐널시티 - 나카스 (야타이포장마차) - 100엔샵 - 전자상가  
포함 : 코비왕복, 숙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홍콩 프리스타일 3일**

추천일정 **449,000원~**

침사추이 - 몽콕야시장 - 빅토리아 피크 야경관광 - 점보레스토랑 - 리펠스베이 명품쇼핑 - 마카오 쇼핑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유럽 프리스타일 17일**

추천일정 **2,090,000원~**

일본 - 런던 - 파리 - 베니스 - 로마 - 취리히 - 인터라겐 - 루체른 - 뮌헨 등  
포함 : 왕복항공, 공항세, 일본 특급호텔 2박, 숙박11박, 유레일패스(2등석), 유로스타, 여행자보험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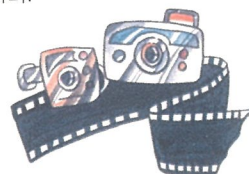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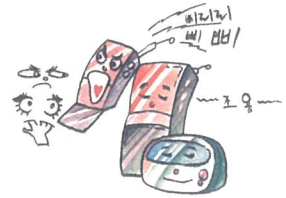


##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암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을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클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 연극 내마음의 안나푸르나 10% 할인



- ▶ 날짜 : 2007. 6. 8(금)~6. 17(일)
- ▶ 시간 : 8일(금)-17일(일) 평일 오후 7:30, 토 오후 4:30, 7:30, 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19일(화)-24일(일) 오후 7:30(일요일은 오후 6:30)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입장권 :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 음악회에서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르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글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엑스**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엑스**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 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협력업체 이용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별난물건박물관, 필하모니, 가마골 소극장, 아쿠아리움 등)

##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http://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 교통편

버 스 : 19, 51-1, 68,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터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7번가 피자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터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 박호성과 김영임이 만나는

# 첫시해피콘서트



창 · 김영임

모듬북 신문범, 최오성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중창단  
노래지도 김운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6.8(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 부산일보사

협찬 | QUEENDOM | ENPRANI |

공연문의 |

- 부산문화회관 625-8130 www.bsculture.busan.kr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 607-6110 www.bsgugag.com

입장권 | 균일 15,000원

- ※ 정기회원 : 홍보부에 예약 후 계좌입금회원에 한하여 30% 할인(1인 4매)
- ※ 단체관람 : 30명 이상 단체신청시 10% 할인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365  
www.ticket365.co.kr

서면 /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부서적(제일은행 옆 803-8000) 대연동 / 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개금 / 신개금LG CLS(신개금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 / 남포문고(동림빌딩 1층 245-8911~3)  
하단 / 향학서점(동아대 입구 204-9381) 덕천동 / 대한도서(덕천교차로 332-7339)